

#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배가브리엘

## □ 목차

No.	구분	내용	page	
1	현지동향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 여러 엑스포 개최	44	
2		2017년 하반기 IETM 미팅은 브뤼셀에서 개최	45	
3		브뤼헤의 <디셈버 댄스 (December Dance)>, 2017년 12월 7일부터 열흘간 개최	47	
4		11~12월 연말, 다양한 예술축제 개최	49	
5		브뤼헤 콘체르트헤바우와 문화센터, 예술축제 연이어 개최	50	
6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 브라파(BRAFA) 개최	51	
7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에 안은미 컴퍼니 참여	52	
8		제37회 아니마(ANIMA)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안재훈 감독의 '소나기' 폐막작 선정	53	
9		브뤼셀 극장들의 협력, 서커스 축제 <Festival UP!> 약 열흘간 개최	54	
10		브뤼셀의 대표적 무용예술기관 '브리지틴스', 3월말까지 현대무용축제 계속 진행	55	
11		3개의 국제영화제 진행, 시각예술로서의 영화 다양성에 기여	56	
12		하피너리(La Raffinerie)의 현대무용축제 <Festival LEGS>,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	57	
13		벨기에 최대의 예술축제, 'Kunstenfestivaldesarts 콘스텐페스티벌' 진행	58	
14		"유동하는 도시(Liquid City)" 브뤼헤 건축 트리엔날레, 5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59	
15		"Your sounds, my moves, our words" 한-EU 수교 55주년 기념행사 개최	60	
16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P.A.R.T.S. / Performing Arts Research and Training Studios VZW	61
17			a.pass(Advanced Performance And Scenography Studies) / 에이패스(아패스)	61
18			La Venerie / 라 베느리	62
19			Trois C-L / 룩셈부르크 안무창작센터	63
20		BOZAR / 보자르	63	
21		공간	Kaai Theatre / 카이씨어터	64
22			Beursschouwburg / 베어사우베르	66
23			Les Briggittines / 브리지틴스	67

24		La Balsamine (Theatre la Balsamine) / 라 발사민	69
25		Bibliothèque Solvay / 비블리오테크 솔베이	69
26		Concertgebouw Brugge / 콘체르트헤바우 브뤼헤	70
27		KVS(Royal Flemish Theatre) / 로열 플레미쉬 극장	71
28		Les Ateliers Claus/ 아틀리에 클로스	73
29		Le 140	73
30		La Raffinerie / 하피너리	74
31		MIM(Musical Instruments Museum) / 악기박물관	76
32		Les Theatres de la Ville de Luxembourg / 룩셈부르크 극장	77
33		Theatre Varia / 바리아 극장	77
34		ARGOS / 아르고스	79
35		Q-Factory Amsterdam / 큐-팩토리	79
36	축제 및 행사	BSPF(Brussels Street Photo Festival) / 브뤼셀 거리사진축제	80
37		Photo Brussels Festival / 포토브뤼셀 페스티벌	81
38		Brussels Cafe-theatre Festival / 브뤼셀 카페-테아트르 페스티벌	82
39		World Christmas Circus (Wereldkerstcircuit) / 월드 크리스마스 서커스	82
40		Zinneke Parade / 지네케 퍼레이드	83
41		Pays de Danses / 페이드당스	84
42		Brussels Dance! / 브뤼셀 댄스	85
43		Festival XS (Festival Extra Small)	86
44		Courtisane Festival / 코티잔 페스티벌	86
45		Gentse Feesten (Ghent Festivities) / 겐트 페스티벌	87
46		Tomorrow Land / 투머로우랜드	88
47		TAZ (Theatre Aan Zee)	88
48		인물	Minhee Bervoet / 민히 베르보츠
49	구자하(Jaha Koo)		90
50	허성임		91
51	기사 아이템 제안	벨기에 리에주 무용축제 <페이 드 당스 Pays de Danses>	92
52		페이 드 당스/브뤼셀!댄스 축제 취재 <페이 드 당스 Pays de Danses>	92
53		벨기에의 영화축제	93
54		브뤼셀의 대표적 아트페어(Art Fair)	93

## □ 현지동향

I. 현지 동향			
유형	전시/축제	장르	시각예술
관련링크	(1) 이슬람 엑스포 : <a href="http://expo-islam.be">http://expo-islam.be</a> (2) 유로팔리아 인도네시아 : <a href="http://bozar.be/fr/activities/122835-europalia-indonesia">http://bozar.be/fr/activities/122835-europalia-indonesia</a> (3) 오세아니아 엑스포 : <a href="http://kmsg-mrah.be/expositions/oceania">http://kmsg-mrah.be/expositions/oceania</a>		

###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 여러 엑스포 개최

시민들이 테러에 대한 위협을 직접적으로 실감하고 난민의 유입도 늘어나면서, 외국 및 외국인에 대한 분위기가 예전보다 다소 경색되었다. 그러나 브뤼셀은 약 180개국 시민들이 모여 사는 개방과 자유의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2017년 도시의 모토를 혼종 내지 혼합("Mix-ity")으로 삼으며 이질적 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다국적 국가이자 유럽연합의 중심지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부응하듯 여러 예술기관이 중동, 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 문화권에 대한 엑스포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

우선 지난 9월 15일부터 <이슬람 엑스포> 전이 브뤼셀의 밴더볼트(Vanderborcht) 건물에서 진행 중이다. 이슬람 문명은 8세기 스페인을 지배했던 이후 유럽과 지속적으로 접촉 및 교류해 왔다. 유럽에 영향을 끼친 이슬람 문명을 크게 세 시대 - 무슬림이 이베리아 지역을 점령한 아랍 시대, 오토만 제국이 발칸반도로 진출했던 오토만 시대, 제국이 쇠퇴하고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밀려오는 가운데 독립운동이 발발했던 식민주의 시대로 구분하고 각 시대의 유물을 동일한 맥락에서 전시한다. 유물들이 단지 이슬람 문명권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유럽 역사의 일부("이슬람 역사는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L'islam, c'est aussi notre histoire)")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문화권이 갈등을 겪고 접점을 형성하며 융합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즉 약 1300여 년에 걸친 이슬람과 유럽의 관계를 살펴보고,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번 <이슬람 엑스포>의 취지이다. 엑스포는 내년 1월 21일까지 브뤼셀에서 진행된 후 불가리아의 사모코프 등으로 이동, 여름에 막을 내린다.

한편 1969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되어 온 시각예술 비엔날레 <유로팔리아(Europalia)>는 역사가 깊은 만큼 규모도 큰 행사다. 특정 국가를 주빈국(Guest Country)으로 선정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를 살펴보는 데 무게중심을 둔다. 이번 유로팔리아의 주빈국은 인도네시아로,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약 4개월 간 여러 예술기관이 협업하여 인도네시아의 예술작품을 소개한다. 장르와 시대에 구애받지 않으며,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진, 영화, 연극, 무용, 음악, 문학, 음식 등을 폭넓게 다룬다. 일례로 벨기에 최대의 종합예술기관으로 꼽히는 보자르(Bozar)는 두 개의 테마전을 진행한다. <선조들(Ancestors)>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전통제례들이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는 한편 <권력과 그 외의 것들(Power and other things)>에서는 183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음악과 춤, 문학, 영화 등을 소개한다. 이처럼 유로팔리아 인도네시아는 작금의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낸 작품을 포괄함으로써, 관람객으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와 외부 문화의 교류 - 유럽과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던 시기에 어떤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현재 아티스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썩경뜨네흐 박물관(Musée de Cinquantenaire)이 주최하는 <오세아니아 엑스포> 역시 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관람객을 맞이하는 중이다. 오세아니아에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약 6만 년 전으로, 유럽인들은 항해술이 발달한 18세기에 비로소 독특한 고유의 문화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세아니아 엑스포>는 처음으로 교류를 시도했던 유럽인들의 시선과, 오세아니아 전통에 뿌리를 두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온 내부인들의 시선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한다.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뉴칼레도니아, 마이크로네시아 등 오세아니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공개되는데, 도자기, 지도, 배, 악기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 뱃사람들의 기기나 기록물도 포함된다. 더불어 현대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타히티 출신 아티스트인 장-폴 포레스트의 작품을 이 유물들과 나란히 전시하여, 현대에 들어 오세아니아의 전통이 어떤 식으로 발현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처럼 현재 브뤼셀에서는 “믹스티”를 외치며 다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탐색하는 전시들이 열리고 있다. 외부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도시의 포용력을 강화하고 개방적인 문화 생태계에 일조하고자 하는 여러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은 교류와 소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사진1, 2 : 오세아니아 엑스포, 유로팔리아 인도네시아에 대한 옥외광고)



유형	축제	장르	공연예술
관련링크	(1) IETM 홈페이지 <a href="https://www.ietm.org">https://www.ietm.org</a> (2) IETM 페이스북 <a href="https://www.facebook.com/pg/IETMnetwork">https://www.facebook.com/pg/IETMnetwork</a>		

### 2017년 하반기 IETM 미팅은 브뤼셀에서 개최

IETM(Informal European Theater Meeting ; 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국제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은 약 50개국 이상에 걸쳐 500개 이상의 연극, 무용, 서커스, 뉴미디어 및 기타 공연예술을 제공하는 기관(축제, 프로듀서, 학교 등) 및 개인 아티스트를 회원으로 보유한 네트워크이다. 1981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는 세계 각지에서 비정기 미팅을 진행하는 동시에, 1년에 2번씩 특정한 이슈를 주제로 삼아 유럽의 대도시에서 총회(IETM Plenary meeting)를 진행 중이다. 2017년 상반기(4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총회가 진행된 데 이어 이번 11월에는 브뤼셀에서 하반기 총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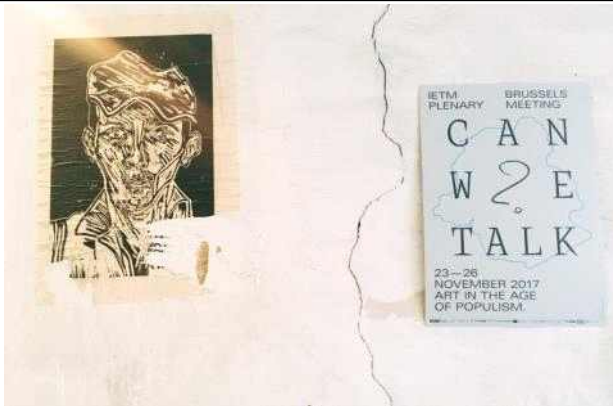
IETM이 총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회원 및 회원들이 소속된 단체 또는 국가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양질의 공연예술을 위한 실험이 지속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각 기관들이 다루는 공연을 다

변화하고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성(Inclusion)”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매 총회를 아우르는 화두 역시 작금의 정치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상반기에는 공연예술계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과 도전에 대해 다루었고 이번 하반기에는 파퓰리즘이 공연예술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의미를 주제로 삼았다. 이런 화두에 대하여 참석자들이 그들의 배경 - 인종, 성별, 성적 지향성, 장애 여부, 나이, 직업, 국적 등에 무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일례로 IETM의 키노트를 포함해 모든 세션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를 동반하며, 스크린과 자막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파퓰리즘 시대의 예술(Art in the age of populism)”이라는 주제 아래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총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프로그램은 네트워킹 세션, 토론 세션, 상연 세션 등으로 나뉜다. VUB 대학 에릭 코린 교수의 오프닝 연설로 그 막을 여는 토론 세션에서는 발제자와 참석자가 여러 소주제- 파퓰리즘의 재정의, 소외지역에서의 예술행위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참석자들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여러 세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데 이 중에는 사전 신청을 마친 참석자들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파트너를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세션도 있어, 실질적인 협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저녁에는 총회의 담론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연극, 무용, 퍼포먼스, 미디어아트 등)이 제공된다. 일례로 KVS 극장은 벨기에를 대표하는 현대무용단 중 하나인 <울티마 베즈(Ultima Vez)>의 <현대의 구세주에 대한 모큐멘터리(Mockumentary of a Contemporary Savior)>를, 샤를루아 당스는 한국의 국립현대무용단과 <나티보스>를 공동제작하기도 한 애슬린 파롤린의 <자연 발생 II(Autoctonos II)>을, 바리아 극장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원본을 개작한 <펠리컨(the Pelican)>을 상연한다. 장르를 막론하고 이번 총회 기간 동안 제공되는 대부분의 공연이 인간에 대한 외압과 강제, 배타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번 IETM 총회는 11월 26일로 막을 내린 후, 2018년 4월에는 포르투갈의 포르투, 11월에는 독일의 뮌헨에서 또다시 열릴 예정이다. 약 800명 이상이 참석하며 역대 최다 참석자 기록을 다시 갱신한 가운데, 브뤼셀 북부의 몰렌백생장 지구를 중심으로 여러 공연장에서 포용성 있는 예술을 위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 1-6 : IETM 개최 현장)





유형	전시/축제	장르	공연예술/무용
관련링크	<a href="https://www.concertgebouw.be/en/sub/decemberdance">https://www.concertgebouw.be/en/sub/decemberdance</a>		

### 브뤼헤의 <디셈버 댄스 (December Dance)>, 2017년 12월 7일부터 열흘간 개최

벨기에 브뤼헤(Brugge)에서는 매년 12월 국제적인 무용축제 <디셈버 댄스(December Dance :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DD)>가 개최된다. 브뤼헤의 다양한 예술기관들이 참여하는 이 축제는 벨기에의 가장 중요한 무용축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브뤼헤 문화센터(Cultuurcentrum Brugge)와 콘체르트헤바우 극장(Concertgebouw)이 협력해 매년 12월 초 열흘 간 축제를 개최한다. 2007년 첫 개최 후 올해로 11회를 맞이, 초청 아티스트의 공연과 신진 아티스트의 쇼케이스가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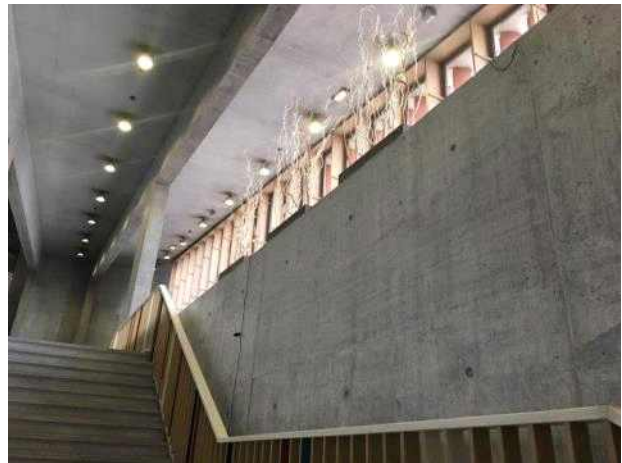
올해 DD의 큐레이터는 크리스티앙 리조(Christian Rizzo)가 맡았다. 크리스티앙 리조는 프랑스의 국립안무센터 중 하나인 몽펠리에 안무센터(ICI-CCN)의 예술감독 출신으로, 제롬 벨이나 라시드 우람단 등과 함께 손꼽히는 안무가이다. 시각예술을 전공한 후 록 뮤지션으로서 첫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패션 디자이너로, 무용수로, 안무가로 길을 바꾼다. 1996년 예술단체 '프래질어소시이션(Fragile Association)'을 설립하면서 무용과 음악, 조형예술을 자유롭게 결합해 온 그가 큐레이터로 선정된 것은 과거 얀 파브르가 DD의 큐레이터 역할을 맡았을 때를 떠올리게 한다. 얀 파브르가 연출가, 화가, 작가, 디자이너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며 탈장르적 무대를 제공해 왔듯이, 인간의 신체를 디자인적 요소 중

일부로 고려해 온 크리스티앙 리조는 2017년 DD의 기초를 “춤의 경계를 초월하는(Beyond the boundaries of dance)” 것으로 삼았다.

12월 7일 콘체르트헤바우에서 열리는 첫 공연은 크리스티앙 리조의 <이안 신드롬(Le Syndrom Ian)>으로, 가수 이안 커티스(Ian Curtis)가 참여해 디스코, 펑크 댄스와 화려한 시각효과를 한데 섞는다. 이후 바니아 바노(Vania Vaneau), 소로 다라비(Sorour Darami), 오하드 나하린(Ohad Naharin)과 리옹오페라발레단 등이 12월 17일까지 공연과 워크숍을 제공한다. 춤 이상의 춤, 인간의 신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실험하는 경험을 관객에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꾸려진 공연들이다. 일례로 리옹 발레단의 <두번째 디테일(The Second Detail) / 회전(Turning)>은 발레에 기반한 까다로운 테크닉으로 이름이 높은 윌리엄 포사이스(William Forsythe)의 작품이다. 이번에도 그는 저글링이나 핸드볼, 민속무용 등 다양한 원천에 영감을 받아 기존의 고전 발레적인 움직임 - 아라베스크, 애티튜드, 피루엣 등을 해체해 보여준다. 발레 드 로렌(Ballet de Lorraine)의 <요소 I (Elements I)>와 <혁명을 위한 초현실주의(Le Surrealisme au service de la Revolution)> 역시 그 제목에서 느껴지듯 무용수들의 몸을 하나의 기호 또는 구성요소로 간주하며 여러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불안정한(Stifling)”, “괴이한(Bizarre)”, “범상치 않은(Extraordinary)” 등의 수식어가 전체 프로그램을 관통하고,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은 크리스티앙 리조가 선정한 젊은 아티스트들이 보다 실험적인 공연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전시와 콘서트도 함께 열린다. 일렉트로닉 밴드 세쿨(Cercueil)은 데이비드 린치의 컬트 영화 <이레이저 헤드> 사운드트랙을 연주하며, 전시 <프레임 안에서의 눈의 호흡(La Respiration des yeux dans le cadre)>가 브뤼헤의 ‘드 본드(De Bond)’에서 열린다. 사진작가이자 영화제작자 도로시 스미스(Dorothee Smith)의 사진, 크리스티앙 리조의 미디어아트 작품 등을 내년 1월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큐레이터에서부터 참가 단체의 면면에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12월 초 <디셈버 댄스>는 유럽 현대무용의 혁신적 일면을 제시한다.

(사진 1-4 : 디셈버댄스 개최기관 콘체르트헤바우 / 사진 5-7 : 디셈버댄스 워크숍 및 프로그램)





유형	전시/축제	장르	공연예술
관련링크	BE Film : <a href="http://befilmfestival.be">befilmfestival.be</a> / Le Jour Le Plus Court : <a href="http://lejourlepluscourt.be">lejourlepluscourt.be</a> Noel au Theatre : <a href="http://ctej.be">ctej.be</a> / Zebrawood : <a href="http://www.zebrawoods.be">www.zebrawoods.be</a>		

### 11~12월 연말, 다양한 예술축제 개최

12월을 맞아 대부분의 극장들이 내년 시즌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연말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다양한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리는 중이다. 11월에는 주로 컨템포러리 연극, 무용 등 현대예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교류를 도모하는 축제들이 개최되었다면,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 연휴 동안 일반 관객들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 다수 열릴 예정이다.

얼마 전에는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된 복합예술축제 <Next>가 막을 내렸다. 코르트레이크, 투르네 등 벨기에와 프랑스 4개 도시의 다수 예술기관이 참여하여,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국가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워크숍과 토론 및 다양한 공연이 전개되었다. 기성 및



신진아티스트가 모두 자유롭게 참여하는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또한 갖추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벨기에, 스코틀랜드, 프랑스에서 온 총 36명의 청소년들이 “Teenexters” 행사에 참여하여 현대예술을 체험하고 서로 다른 문화 간 접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 리에주에서 열린 복합예술축제 <IMPACT> 역시 흥미로운 구성을 보여주었다. <IMPACT>는 그 이름(공연예술 및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국제 미팅, International Meeting for Performance Arts and Creative Technology)에서 알 수 있듯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 및 다양한 시청각적 혁신기술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행사다. 리에주 극장을 주축으로 예술과 기술의 학문적 또는 실질적 접점을 모색하는 행사가 약 한 달 간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브뤼셀의 현대예술기관 베어사우베르가 주최한 <Batard Festival>과 <Feminism is Future> 축제 역시 컨템포러리 아트에 중심을 두고 여러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12월부터는 한결 폭넓은 관객층을 위한 축제가 여럿 열린다. 우선 영화축제로 <BE film Festival>과 <가장 짧은 날(Le Jour le Plus Court)>을 꼽을 수 있다. 보자르의 시네마테크에서 열리는 <BE Film Festival>은 벨기에 영화를 위한 축제다.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벨기에 감독이 제작한, 벨기에 배우가 출연한, 또는 벨기에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상영한다. 벨기에의 감독이자 각본가인 핀 트로흐의 베니스영화제 수상작 <홈(Home)>이 마스터클래스 상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사무엘 킬만의 <그림자의 일부(Une part d'ombre)>, 루카스 벨보의 <디스 이즈 아워 랜드(Chez Nous)>, 필립 반 리우의 <인 시리아(Insyriated)>가 초청작으로 선정, 여러 감독과 제작자, 배우들이 관객과의 만남을 진행한다. 한편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동지(12월 21일)에 열리는 행사인 <가장 짧은 날>은 브뤼셀 및 기타 프랑스어권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는 축제로, 다양한 단편영화들을 관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원래 프랑스에서 출발한 축제가 지금은 브뤼셀을 포함한 프랑스어 문화권 전역에서 현지의 극장, 아티스트, 학교 및 기타 예술기관과 협업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극장의 크리스마스(Noel au Theatre)>를 빌어, 브뤼셀의 여러 극장에서는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2017년에 열렸던 아동극들을 다시 제공한다. 올해로 36회를 맞는 행사로 9개 장소에서 총 22개 작품이 상연되며, “1살부터 100살까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용, 음악, 인형극 등을 포함한다. 12월 27일부터 1월 7일까지 열리는 음악 축제 <제브라우드(Zebrawood)> 역시 눈여겨 볼 만하다. 겐트에서 열리는 음악축제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클래식과 펑크, 월드뮤직을 포괄하며 여러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다. 이외에도 브뤼셀 곳곳 성당에서는 <합창 페스티벌(성 미카엘과 구아달라 성당)>, <그레고리안 성가 축제> 등과 같은 소규모 음악행사도 연다. 이처럼 11월 다양한 현대예술축제가 진행, 막을 내린 후 연말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축제들이 그 자리를 메울 예정이다.

유형	전시/축제	장르	시각예술/공연예술
관련링크	브뤼헤 포토 : <a href="http://www.bruggefoto.be/">http://www.bruggefoto.be/</a> 브뤼헤 문화센터(CC) : <a href="http://www.ccbrugge.be">http://www.ccbrugge.be</a> 콘체르트헤바우 브뤼헤 : <a href="http://concertgebouw.be">http://concertgebouw.be</a>		

**브뤼헤 콘체르트헤바우와 문화센터, 예술축제 연이어 개최**

지난 12월 현대무용축제 <디셈버 댄스(December Dance)>를 개최한 것과 더불어, 브뤼헤의 콘체르트헤바우(Concertgebouw Brugge)와 브뤼헤 문화센터(Cultuurcentrum Brugge)는 연이어 또다른 예술축제를 개최한다. 브뤼헤는 운하와 고딕 양식 건축물 등에 힘입어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현재 시 정부는

이러한 관광수입을 활용해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디셈버댄스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예술축제들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브뤼헤의 44갤러리, 드 탱크(De Tank), 복스쿤데뮤지엄(Volkskundemuseum) 등에서는 사진축제 <브뤼헤 포토 Brugge foto>가 열렸다. 지난 12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된 축제는 올해로 제 5회를 맞이, 총 10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브뤼헤 시 정부가 지원하는 축제로 약 45명의 국내외 사진작가가 참여했다. 주최측은 다큐멘터리 포토부터 초상사진까지 장르에 무관하게 작품을 선정, 전시했으며, 신진작가와 기성작가의 작품을 고루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 <브뤼헤 포토>가 단지 한 두 미술관이 아닌 여러 장소에서 진행되는 까닭은 관람객들이 “도시 곳곳을 걸어 다니며 브뤼헤 전역을 탐방”할 수 있도록 위함으로, 주최 측은 “도시성”에 축제의 방점을 둔다.

특히 콘체르트헤바우는 <브뤼헤 포토>를 12월 <디셈버 댄스> 축제와 연계했다. <디셈버 댄스>의 큐레이터 크리스티안 리조가 선정한 작품이 콘체르트헤바우에서 <Ad Noctum>이라는 제목으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사진작가 아네리스 드 메이, 오로레 달 마스 등의 흑백 사진을 중심으로 “빛과 어둠”의 관계에 대해 관람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큐레이터 및 사진작가들의 리뷰를 받을 수 있는 포토폴리오 세션, 워크샵 세션 등이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한편 브뤼헤 문화센터는 <디셈버 댄스>의 뒤를 이어 새로운 무용 축제를 기획했다. <춤의 비트(Bits of Dance)>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축제는 젊은 무용수 및 안무가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신진 안무가 및 공연자들의 작품을 초연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문화센터 산하의 MaZ 등에서 공연을 선보이는데, 스위스 출신의 안무가 레아 모로, 미국 출신의 안무가 트라잘 하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춤의 비트> 이후에도 브뤼헤 콘체르트헤바우와 문화센터에서는 <벨 문도(Bel Mundo)>, <와크(WAK)>, <에어백(Airbag)> 등 여러 축제가 끊임없이 진행된다. 포르투갈, 스페인 지역의 음악, 문학, 무용 공연을 위한 <벨 문도>가 3월, 로컬 아티스트들의 작품 전시 및 상연을 위한 <와크>가 4월, 아코디언 악기 비엔날레 <에어백>이 5월에 열린다. 브뤼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브뤼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축제들로, 브뤼셀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도시 및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유형	전시/아트페어	장르	시각예술
관련링크	<a href="http://www.brafa.art">www.brafa.art</a>		

###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 브라파(BRAFA) 개최**

2018년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브뤼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트페어인 <BRAFA(브라파, Brussels Art Fair)>가 열린다. 고대 회화작품부터 앤티크 공예작품과 가구, 보석까지 다양한 예술작품이 거래되는 아트페어로, 1956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고(最古)의 아트페어 중 하나이다. 벨기에 및 해외 지역에서 약 130개 이상의 갤러리가 참여하는데 올해는 캐나다, 독일, 프랑스, 헝가리, 영국, 일본 등 15개국으로부터 작품이 출품 및 거래될 예정이다. 매년 약 1만 5천개 정도의 작품이 선을 보인다. 고고학적 또는 민속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에서부터 오래된 동전이나 보석, 가구, 회화, 도자기, 자동차까지 약 20개 장르를 포함한다.

BRAFA는 매년 초청작가(Guest of honor)를 선정하고 특별전을 마련하는데, 작년 옵티컬 작가 훌리오 르 파르크(Julio le Parc)가 작품을 선보인데 이어 올해는 크리스토(Christo)가 초청작가로 선정되었다. 크리스토와 그의 부인 잔느 클로드느 이른바 대지미술작가로 이름을 떨쳤으며, 그의 작품은 자연의

일부나 대형 건축물을 천으로 감싸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번 BRAFA에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Three store fronts>가 전시될 예정인데 약 14m 길이에 3m의 높이로 역대 BRAFA에서 전시된 작품 중 최대 규모의 작품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매일 4시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큐레이터, 수집가, 감정가 및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토론 세션 <브라파 아트 토크>를 가진다. 앙리 마티스와 북한 예술가의 관계, 현대 미술계에서 스캔들이 갖는 의미, 예술 작품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방법, 오세아니아 미술에 대한 탐구 등 여러 흥미로운 키워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로 63회를 맞이하는 BRAFA는 벨기에 왕립미술관, 보자르, 라모네, 생쾅뜨네흐 미술관 등 브뤼셀 시내의 주요 예술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올해도 약 6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유형	전시/축제	장르	무용/공연예술
관련링크	<a href="http://holland-dance.com">http://holland-dance.com</a>		

###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에 안은미 컴퍼니 참여

네덜란드 댄스 페스티벌, 또는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Holland Dance Festival)이 2018년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진행된다. 네덜란드왕실 등의 후원을 받는 축제로, 안무가 지리 킬리안과 NDT, 네덜란드 왕립 콘서바토아 등으로 이름이 높은 네덜란드 현대무용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았다.

네덜란드 국내외 안무가와 무용단체의 작품 약 40~50개를 선정해 상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워크숍과 컨퍼런스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례로 2018년에는 무용수와 일반인 모두를 위한 아이스 스케이팅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갖추어 “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축제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2018년에는 19개국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며, 헤이그(Haag)의 코르조 극장을 중심으로 델프트,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 지역의 극장에서 여러 작품을 상연한다. 네덜란드의 NDT와 미국의 마사 그레이엄 댄스 컴퍼니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안은미 컴퍼니가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Dancing Grandmothers)>로 초청공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안은미 컴퍼니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 갈라쇼에도 참여하면서 현지 관계자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는 민속음악과 전자음악, 화려한 무대장치를 활용하는 가운데 전문 무용수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용단원들과 함께 공연하는 작품이다. 안은미 컴퍼니의 세대 3부작(<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사심없는 댄스>,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 중 하나로서, 몸의 노화에 대처하는 법을 성찰하는 작품으로 네덜란드 관객을 만난다.

이외에도 한국계 입양인 안무가로서 벨기에 및 네덜란드에서 활동 중인 민희 베르보츠 역시 축제에 참여한다.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은 이미 1987년에 호세 리몬, 오하드 나하린, 피나 바우쉬, 윌리엄 포사이드 등이 참여한 바 있는 유서 깊은 축제로서, 축제기간 전후로도 주최기관 ‘홀랜드댄스’는 프로그래밍과 제작, 상연을 계속한다. 2018년 축제가 끝나는 대로 3월에는 벨기에의 대표 안무가 중 하나인 시디 라비 체르카위의 작품을 헤이그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 :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 포스터)

유형	전시/축제	장르	영화/시각예술
관련링크	<a href="http://www.animafestival.be/">http://www.animafestival.be/</a>		

### 세계37회 애니마(ANIMA)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안재훈 감독의 '소나기' 폐막작 선정

벨기에 브뤼셀에서 매년 개최되는 애니마(ANIMA)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가 올해로 제37회를 맞았다. 애니마 영화제는 토티, 스머프 등 유명한 캐릭터를 탄생시키며 “만화강국”으로 불리는 벨기에의 주요 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프랑스), 자그레브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크로아티아), 오타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캐나다) 등과 함께 세계 10대 애니메이션영화제로도 꼽힌 바 있다.

애니마 영화제는 다양한 국내외 작품 약 300여편을 상영하며, 전적으로 애니메이션 작품만을 상영하는 가운데 관련 전시와 콘서트, 마스터클래스 등을 제공하며 아동용 섹션도 별도로 운영한다. 올해에는 아카데미 최우수 애니메이션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소재로 삼은 <반 고흐: 위대한 열정((La Passion Van Gogh)>, 아프가니스탄 소녀의 성장기를 다룬 <더 브래드위너(The Breadwinner)> 등도 출품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안젤리나 졸리가 제작을 맡은 사회고발적 애니메이션 <더 브래드위너>는 2월 9일 애니마영화제의 포문을 연다. 신데렐라를 재해석한 <신데렐라 더 캣>(이탈리아), 동명의 소설을 만화로 제작한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일본) 등이 장편 부문에서 경쟁하며, <밤의 이야기>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 감독 미셸 오슬로도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로 참여한다.

한국 감독들도 애니마영화제에 계속해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5년에는 연상호 감독의 '사이비'와 장형윤 감독의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가 출품되어 호평을 얻었다. 2017년에는 연상호 감독의 '서울역'이 장편 경쟁부문에 진출한 가운데 장나리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아버지의 방'이 학생부문 최우수 단편상을 수상하였다. 2018년 제37회 영화제의 폐막작으로는 안재훈 감독의 '소나기'가 선정, 매진을 기록하였다. 특히 1월 중 브뤼셀의 보자르(Bozar)에서 홍상수 감독의 회고전을 개최, 마스터클래스 등이 매진을 기록한 데 뒤이어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과 평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애니마영화제는 1982년 시작된 이래 양질의 작품들을 선정해 소개하면서 성인과 청소년, 아동 관객을 포괄하는 애니메이션영화제로 이름을 굳혀 왔다. 제37회 행사는 벨기에 이셀(Ixelle) 지구의 예술기관 '플라제(Flagey)'에서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약 열흘간 진행,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

유형	축제/행사	장르	서커스/공연예술
관련링크	Http://www.upfestival.com		

**브뤼셀 극장들의 협력, 서커스 축제 <Festival UP!> 약 열흘간 개최**

벨기에는 연극과 무용, 음악뿐만 아니라 서커스와 인형극 등 소위 '서브컬처(Sub-culture)'로 분류될 만한 장르의 공연도 자주 이루어지는 편이다. 브뤼셀 시내에는 인형극 전용극장과 인형극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비록 인근 네덜란드의 '로열 서커스 축제'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매년 서커스를 위한 축제도 개최된다. 특히 벨기에 플랑드르어권은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 서커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현대무용의 성지라 불리는 벨기에의 특성을 반영한 융합장르적 서커스 공연이 왕왕 이루어진다. 매년 3월 동안 약 열흘에 걸쳐 진행되는 서커스 축제 <Festival UP!>은 컨템포러리 서커스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장이다.

<UP!>은 짝수 해마다 개최되는 인터내셔널 서커스 비엔날레로, 브뤼셀의 13개 기관이 협력하여 120명 이상 아티스트들에게 자리를 마련한다. 평소에는 연극 위주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마르니 극장(Theatre Marni), 현대무용작품을 다수 상연하여 "무용전용극장"으로도 불리는 바리아 극장(Theatre Varia)과 현대무용단 '샤를루아 당스'가 운영하는 하피너리(La Raffinerie), 아동극 전문극장으로 유명한 브롱크스 극장(Bronks), 복합장르적인 작품을 선호하는 140 (Le 140) 등이 참여한다. "서커스의 경계를 실험"하며 진화된 형태로의 서커스를 소개하는 것이 축제의 주요 목표로서, 과거의 곡예 또는 기예에 가까운 서커스의 범주를 확장하여 다른 공연예술장르와 결합하고자 한다.

<UP!>이 정의하는 서커스는 다양한 시청각적 장치를 실험하는 동시에 인간의 몸을 하나의 언어로 사용하는 예술로, 현대성과 실험성이 강한 종합예술로서 그 의미가 있다. 즉 열흘간 관객들에게 크고 작은 규모의 서커스를 다수 제공하는 <UP!>은 연극, 무용, 음악, 벌레스크와 순수미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공연예술"로서의 서커스를 고찰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올해 <UP!>은 벨기에의 '나가 콜렉티브(NAGA Collective)', 프랑스의 '프로젝토 프레시피시오(Proyecto Precipicio)', 스페인의 '레안드리(Leandre)' 등이 참여해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관객들을 만난다.

(사진1 FestivalUP 2018 / 사진2 FestivalUp 참여 Naga Collective)



유형	축제/행사	장르	현대무용/공연예술
관련링크	<a href="http://www.brusselsdance.eu/">http://www.brusselsdance.eu/</a> <a href="http://www.brigitines.be/en/in-movement-festival/">http://www.brigitines.be/en/in-movement-festiva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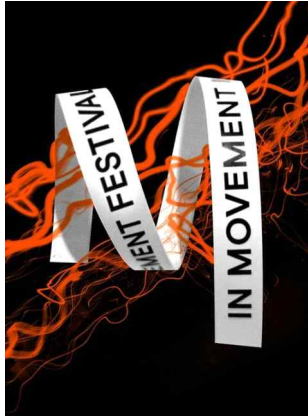
**브뤼셀의 대표적 무용예술기관 '브리지틴스', 3월말까지 현대무용축제 계속 진행**

'브리지틴스(Les Brigittines)'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예술기관 겸 극장으로, "현대무용(만)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명망이 높다. 현대무용 아티스트를 위한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의 예술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아티스트의 상주 및 투어를 후원한다. 건물 곳곳에는 상연용 홀과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작업실도 다수 마련하여 새로운 작품의 제작과 상연을 돕는다. 벨기에 로컬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반면, 현대무용 이외의 작품은 거의 상연하지 않는다 - 어쩌다 콘서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파트너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한정한다. 관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관은 철저하게 비예술적인 행사 - 회사 컨퍼런스, 네트워킹 파티 등에만 실시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브리지틴스는 브뤼셀의 관객들에게 "브리지틴스에 가면 다양한 현대무용공연을 볼 수 있다"는 호평과 공감대를 얻고 있다.

브리지틴스는 2018년 <브뤼셀 댄스(Brussels Dance!)> 축제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브뤼셀 댄스>는 매년 브뤼셀 시 정부와 로열 플레미시 극장, 국립극장, 바리아 극장, 140, 하피너리, 스카르베코 홀 등 다수 예술기관/극장이 함께 진행하는 현대무용축제다. 2월초부터 3월말까지 두 달 간 열리며, 참여 기관들은 새로 제작한 현대무용작품을 중심으로 일종의 프리미어 행사를 꾸리거나, 그해 상연 예정인 작품들 중 일부를 제시하는 등 특성과 기준에 맞는 큐레이션을 진행한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되, 하나의 기관이 중심이 되어 대내외 커뮤니케이션과 프로모션 및 "관객에게 현대무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을 조직한다. 브리지틴스는 이런 중추 역할을 맡아 <브뤼셀 댄스>를 이끄는 중이다.

이와 더불어 브리지틴스가 2012년부터 개최 중인 비엔날레 <인 무브먼트(In Movement)>도 2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열린다. 브리지틴스가 주최하는 축제로서는 3월의 <인 무브먼트>와 9월의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있는데, 후자는 해외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초청 상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전자는 브뤼셀에 기반하여 제작된 작품을 소개하는 데 중심을 둔다. 작품의 길이나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현대무용과 기타 예술과의 결합을 후원하고 작품의 다양성을 제고한다.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브뤼셀"이라는 지역 또는 그 지역성이다. 플랑드르 문화와 왈로니 문화가 공존하는 브뤼셀의 지역성이 현대무용의 다양성에 일조한다고 보고, 여러 문화권의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인 무브먼트>에는 벨기에의 대표적 현대무용컴퍼니 중 하나인 담드픽(Dame de Pic)과 안무가 에리카 주에넬리(Erika Zueneli), 마리아 유지니아 로페즈(Maria Eugenia Lopez), 빔 반데키부스(Wim Vandekeybus) 등이 참여한다. 실험성 강한 프로그램으로 <브뤼셀댄스>와 더불어 브리지틴스 관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축제로서, 벨기에 및 브뤼셀 각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로컬 아티스트들이 여러 작품을 선보인다.



(사진1 In Movement 축제)



(사진2 Les Brigittines)

유형	축제	장르	영화/시각예술
관련링크	밀레니엄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a href="http://www.festivalmillenium.org/">http://www.festivalmillenium.org/</a> 브뤼셀판타스틱영화제 : <a href="http://www.biff.net">www.biff.net</a> 브뤼셀초단편영화제 : <a href="http://bsff.be/">http://bsff.be/</a>		

### 3개의 국제영화제 진행, 시각예술로서의 영화 다양성에 기여

3월부터 4월까지 브뤼셀에서는 여러 국제영화제가 꼬리를 물고 진행된다. 특정 장르에 헌신하며 개성적인 프로그래밍을 보여주는 영화제들로, 영화의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관객들의 성원과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우선 밀레니엄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3월마다 진행되는 영화제로 다큐멘터리 영화만을 초청 상연한다. 2009년 시작된 이래 올해 제10회 행사가 진행되었다. “잘못된 리얼리즘으로부터 다큐멘터리의 가치를 방어”한다는 기치 아래 다큐멘터리 영화의 의의를 정립하고 좋은 다큐멘터리 작품을 관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영화제의 목표다. 한국 작품으로는 진모영 감독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요>가 심사위원상과 관객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8년 영화제에는 <송환>의 김동원 감독이 심사위원으로 초청 방문하였다. 한국 다큐멘터리 역사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김동원 감독은 밀레니엄영화제 국제부문 14개 작품을 심사하며, 그의 작품 <송환>은 ‘시네마어드벤처’에서 특별 상연회를 가졌다.

한편 브뤼셀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FF, Brussels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는 매년 4월 브뤼셀에서 열리는 영화제로, 오로지 판타지/SF 장르에 초점을 맞춘 축제로서 명망을 쌓았다. 올해로 36회를 맞이하는 유서 깊은 축제로, 스페인의 시체스영화제(또는 카탈루냐 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포르투갈의 판타스포르토 영화제와 함께 세계3대 판타스틱 영화제로 꼽힌다. 고스족 분장을 한 관람객, 외계인 분장을 한 관람객 등 특이한 관람객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로도 유명하다. 특히 올해는 <셰이프 오브 워터>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방문해 많은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BIFFF에의 한국 감독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2017년에는 <가려진 시간>의 엄태화 감독,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홍지영 감독, 모홍진 감독의 <너를 기다리며> 등 3편이 국제경쟁부문에 진출하는 가운데 총 5명의 한국 감독이 공식 초청을 받아 브뤼셀을 방문했다. 특히 박찬욱 감독은 ‘까마귀 기사상’, 즉 공로상을 수상하며 <박쥐>와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친절한 금자씨> 등을 상연했다. 2018년에는 송정우 감독의 <악몽> 등이 초청받았으며, 약 150편 정도의 판타지 장르 영화작품이 관객에 선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5월 초까지 진행되는 브뤼셀초단편영화제(BSFF, Brussels Short Film Festival)는 단편작품만을 상영하는 영화제로서 의의가 있다. 올해로 21번째 축제를 맞이하였는데, 국제경쟁부문에 무려 4,500편의 작품이 접수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경쟁부문의 쇼트리스트에는 한국 송주승 감독의 <헤리: Girl at the door>도 이름을 올렸다. 영화 장르에는 제한이 없지만 러닝타임은 규정된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

다. 국내외 경쟁부문을 통틀어 약 300개 정도의 작품을 상연하며, 애니메이션(ANIMA) 영화제의 개최지이기도 한 예술기관 '플라지(Flagey)'에서 열흘간 진행된다.

다르덴 형제, 샬탈 애커만, 안드레 델보, 핀 트로흐, 아녜스 바르다 등 한국에도 잘 알려진 영화감독들을 다수 배출한 벨기에는 다른 예술 장르에서와 같이 영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실험적인 태도를 지향한다. "소수의 영화"로 간주되기 쉬운 다큐멘터리, SF/판타지 및 단편영화를 독점적으로 지지하는 영화제가 인기를 끄는 데에서 벨기에 영화계의 특성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겐트 왕립미술원이 독립영화의 부흥을 위해 개최하는 '코티잔 페스티벌', 댄스 영화만을 다루는 '인터내셔널 댄스 필름 페스티벌' 등이 다양한 영화의 제작과 상연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1 BIFFF 현장 / 사진2 BSFF 포스터)



유형	축제/행사	장르	현대무용/공연예술
관련링크	<a href="http://www.brusselsdance.eu/">http://www.brusselsdance.eu/</a> <a href="http://www.brigitlines.be/en/in-movement-festival/">http://www.brigitlines.be/en/in-movement-festival/</a>		

### 하피너리(La Raffinerie)의 현대무용축제 <Festival LEGS>,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

브뤼셀의 대표적인 현대무용기관 '샤를루아 당스(Chareloi Danse)'가 운영하는 '하피너리(La Raffinerie)'는 과거 설탕 정제공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개축한 곳으로, 건물 곳곳에 아티스트들을 위한 작업과 리허설 공간, 네트워킹 홀, 상연장 등을 갖추고 있다. 프랑스어권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위주로 상연하며 크리스티앙 리조, 애슐린 파롤린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몰렌벡생장 지구에 위치, 다소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을 불러모으는 이유다.

하피너리는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 간 '브뤼셀 댄스(Brussels Dance!)' 축제에 참여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내놓은 것에 뒤이어, 자체적으로 'Festival LEGS' 축제를 4월 중순부터 약 열흘 간 진행해 현재 브뤼



셀 현대무용계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 샤를루아 당스가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왈로니-브뤼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작품들이다.

올해의 'LEGS'에는 프랑스 출신의 안무가 올리비아 그랜드빌(Olivia Grandville), 알랭 뷔파드(Alain Buffard) 등이 참여하며, 총 아홉 작품이 공연된다. 한편 이번 'LEGS'의 키워드는 "역사(History)"와 "유산(Heritage)"인데, 이는 EU 전체가 표방하고 있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정책과도 어느 정도 닿아 있다. 하피너리는 공연과 더불어 이 주제에 대해 관객들이 직접 아티스트들과 토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유산과 창조(Heritag and Creation)"라는 제목의 미팅도 병행한다.

시각예술가 레온 박스트(Leon Bakst)의 손녀조카이기도 한 안무가 라라 바사크(Lara Barsacq)는 이번 축제에 <발레 뤼스에서 길을 잃다(Lost in Ballets Russes)> 작품으로 참여하는 바, 단적으로 'LEGS'의 키워드를 드러낸다. 레온 박스트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파블로 피카소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 만들어낸 "발레 뤼스" 흐름을 되돌아보며, 당시의 무대장식이나 오브제가 지금 현대무용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하피너리의 'LEGS'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작품과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과거의 유산이 현대예술로서의 무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끔 한다. 벨기에의 현대무용이란 과거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과거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그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주최측의 의도가 돋보이는 행사다.

유형	축제	장르	시각예술/공연예술
관련링크	<a href="http://kunstenfestivaldesarts.be">http://kunstenfestivaldesarts.be</a>		

### **벨기에 최대의 예술축제, 'Kunstenfestivaldesarts 쿤스텐페스티벌' 진행**

매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많은 공연장과 예술기관은 "쿤스텐페스티벌" 이름표를 내걸고 관객을 맞아들인다. 쿤스텐페스티벌데자트, 또는 KFDA라고 불리는 축제는 명실상부한 벨기에의 대표 예술축제이다. 매년 5월 약 3주간 다양한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작품이 관객에 선을 보이며, 초연 작품도 많은 만큼 각국의 프로그래머들이 모인다. 연극, 무용, 퍼포먼스, 영화, 연극 등 현대예술(Contemporary arts)의 제반 장르를 다루는 축제로서 의미가 크다.

브뤼셀의 카이씨어터, 하피너리, 바리아 극장, 벨론, 시네막시밀리언, 벌스카우버그, 발사민, 브리지틴스 등 유명한 극장들은 대부분 쿤스텐 축제의 파트너로, 대부분의 예술기관은 쿤스텐페스티벌 이벤트를 유치하는 것을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여긴다. 프랑스어권을 대표하는 왈로니-브뤼셀 국립극장과 네덜란드어권의 KVS 플랑드르 국립극장 역시 모두 참여한다. 1994년 "공연예술의 대모"로 불리는 연출가 프리 라 이젠에 의해 시작된 이후, 쿤스텐 축제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호해 왔다. 즉 작품의 실험성과 현대성에 역점을 두고 벨기에 및 해외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고루 선정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의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축제의 목표로 삼는다. 안네 테레사 드 키에르스마커, STAN, 윌리엄 포사이스, 알랭 파텔 등 각 장르의 세계적 예술가들이 아트 디렉터로 또는 아티스트로 참여하기도 했다.

"코스모폴리탄 페스티벌"을 지향하는 쿤스텐 축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는 단지 약 20개 장소에서 여러 행사를 나누어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축제 중심기관("페스티벌 센터") 역시도 네 곳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왈로니-브뤼셀 국립극장이, 5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벌스카우버그(Beursschouwburg)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INSAS가, 이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브뤼셀 CANAL-퐁피두 센터가 그 역할을 맡는다. 특히 올해 5월 새롭게 개관하는 브뤼셀 퐁피두 센터에도 사람

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올해 콘스텐페스티벌에는 비유럽권 아티스트로서 브라질의 현대무용가 엘리스 리폴과 에두아르도 후쿠시마,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미디어 아티스트 호츠니엔 등과 함께 한국의 복합장르 아티스트 김지선도 참여한다. 김지선은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왈로니-브뤼셀 국립극장에서 <Deep Present> 작품을 상연할 예정으로, 아웃소싱과 인공지능을 키워드로 21세기의 인간성에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서 주목을 끈다. 이처럼 벨기에 최대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현대예술축제로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와 프로그래머, 디렉터 및 공연예술종사자들이 모이는 플랫폼의 역할도 겸하는 콘스텐페스티벌은 2018년 5월 4일부터 26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될 예정이다.



유형	축제	장르	건축/시각예술
관련링크	<a href="https://www.triennalebrugge.be/">https://www.triennalebrugge.be/</a>		

### “유동하는 도시(Liquid City)” 브뤼헤 건축 트리엔날레, 5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벨기에 북쪽 지방에 위치한 도시 브뤼헤(Brugge)는 프랑스어식 발음인 ‘브리쥬’로도 잘 알려진 곳으로, 아름다운 운하와 중세 고성의 도시로 특히 유명하다. 플랑드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가져오는 수익을 활용, 각종 문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콘체르트헤바우 브뤼헤 (Concertgebouw Brugge)와 브뤼헤 문화센터(Brugge CC)가 브뤼헤 문화기관의 양대 축을 담당하며 ‘디셈버 댄스(December dance)’, ‘브뤼헤 포토(Brugge Photo)’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는 가운데, 매 3년마다 열리는 ‘브뤼헤 건축전(브뤼헤 건축 트리엔날레)’이 2018년 5월 5일부터 약 네 달 간 진행된다.

이번 트리엔날레의 주제는 “액체 도시(Liquid city ; Vloeibare Stad)”, 즉 운하처럼 부유하는 유연한 도시이다. 세계 각국의 현대예술가 및 건축가들이 이 흥미로운 키워드에 영감을 받아 작업한 결과물을 내놓는다. “액체 도시”라는 키워드는 영국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의 연구에 착안한 것으로, 지그문트 바우만은 작금의 도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도시가 액체처럼 유연해지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2015년 건축전이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로서 점점 몸집을 불려가는 도시의 의미를 돌이켜 보았다면 올해의 건축전은 “(심지어) 브뤼헤와 같이 역사적이고 조용한 마을은 오늘날의 예측불가능성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아티스트와 관람객에게 던지고 있다. 즉 “액체 도시”는 브뤼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운하의 은유이기도 하다.

중국의 운하 및 바다에 서식하는 차이나이즈 망그로브 계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Rotor), 플랑드르 화가 안반 아이크의 동상과 고래를 병치한 작품(Studiokca) 등 “액체 도시”를 주제로 삼아 만들어진 총 열 다섯 개의 작품이 관객에게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 중 많은 작품들은 브뤼헤 운하 위에서 섬처럼, 뗏목처럼 떠다니게 된다. 또한 브뤼헤 광장과 운하를 중심으로 작품을 배치하면서 관객을 도시의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여 관객이 직접 도시와 건축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끔 한다. 이처럼 단지 작품의 감상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직접 창작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2018년

트리엔날레의 목적이기도 하다. 즉 브뤼헤 트리엔날레는 중세와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의 또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기회이자 도시와 사회, 그 거주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유형	이벤트/공연	장르	무용/공연예술
관련링크	<a href="https://www.bozar.be/en/activities/142067-your-sounds-my-moves-our-words">https://www.bozar.be/en/activities/142067-your-sounds-my-moves-our-words</a>		

### “Your sounds, my moves, our words” 한-EU 수교 55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과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외교 및 예술기관이 힘을 모아 흥미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주벨기에유럽연합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 및 서울의 EU 대표부가 협업하여 한-EU 수교 5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여기에 벨기에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예술기관 ‘보자르(BOZAR)’가 가세하여 의미를 더한다.

행사는 5월 9일 유럽연합의 날 브뤼셀 보자르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브뤼셀은 12시부터, 서울은 19시부터 행사를 시작하는데 각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보자르 및 포시즌스의 관객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현재 서울에서, 또는 브뤼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끔 한다. 서로 다른 공간에 위치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연결성”은 55주년 기념행사의 핵심 기치이기도 하다 -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현재의 유럽연합을 만든 만큼,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유하는 55년의 역사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연결성”, 나아가 “디지털 연결성(Digital Connectivity)”이라는 믿음에서 이 행사가 계획된 것이다.

마이클 라이테레 주대한민국EU대사와 김형진 주벨기에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 폴 뒤자르맹 보자르 관장의 축사에 더하여 우선 한국에서는 플루티스트 최나경(자스민 최)이 축하 연주를 가진다. 한인 관악기 주자로는 최초로 미국 신시내티 오케스트라와 오스트리아 빈 심포니의 수석 연주자로 활동했던 최나경은 애국가와 유럽연합가를 연주한다. 이어 벨기에와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가 허성임이 ‘You are Okay!’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허성임은 파독 광부의 삶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You are Okay!’ 작업을 시작했는데, 유럽에서 15년 넘게 지내며 느낀 점을 반추하여 이방인이 새로운 사회에 흡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번 행사는 올해 10월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ASEM 정상회담을 예고하는 동시에 한국과 유럽연합의 문화적 교류를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예술 디렉토리

I.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기관 및 단체	기관명	P.A.R.T.S.		
	유형	기관/학교	장르	공연예술/무용
	운영주체	-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94년
	기관현황	브뤼셀 포레스트 지역, 학교 및 로사스무용단 소재		
	홈페이지	https://parts.be		
	<p>P.A.R.T.S. (Performing Arts Research and Training Studios VZW)는 1994년에 안무가 안느 테레사 드 케에르스마커가 설립한 현대무용학교로서, 무용 및 기타 공연예술 장르에 대한 교육과 리서치 실시를 목표로 두 종류의 커리큘럼(3년제 트레이닝 코스, 1년 이상 리서치 코스)을 제공 중이다.</p> <p>P.A.R.T.S는 모리스 베자르가 설립했던 현대무용학교 무드라(Mudra)가 폐교한 후 벨기에의 대표적 무용기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전 세계에서 학생을 선발한 후 설립자 안느 테레사 드 케에르스마커의 “융합장르적” 기조에 맞춰 무용/음악/연극 등을 총체적으로 교육한다. 로사스 무용단을 비롯해 넓은 외연을 갖추고 있으며, 학내에 컨템포러리 뮤직 앙상블 ‘익투스’, 공연예술작업공간 ‘워크스페이스 브뤼셀’이 함께 있어 아티스트 간 협업을 장려한다. 즉 P.A.R.T.S는 벨기에의 현대무용계에 있어 일종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졸업생은 벨기에 국내외 컴퍼니(로사스, 울티마베즈, 니드컴퍼니, 피나바우쉬, 트리샤브라운 등)로 진출하거나 독자적인 작품을 발표하는 등 관련 예술계에서 활동 중이다. 졸업생으로 안무가 다니엘 리네한, 아르코 렌츠 등이 있다.</p> <p>*[TIP] P.A.R.T.S의 설립자 안느 테레사 드 케에르스마커는 1980년대 벨기에 현대무용 1세대로서, 벨기에 무용계에 전환점을 마련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특히 1983년 로사스(Rosas) 무용단을 꾸려 &lt;로사스는 로사스를 춤춘다(Rosas danst Rosas)&gt;, &lt;드러밍(Drumming)&gt; 등 혁신적인 작품을 발표하며 벨기에를 현대무용의 중심지로 재 부상시키는 데 일조했다.P.A.R.T.S는 민간교육단체로서 벨기에 국가가 인정하는 학위(BA/MA)를 수여하지는 않으나, 수준 높은 교육으로 벨기에 및 유럽 전체에서 손꼽는 현대무용기관 중 하나가 되었다. 유럽의 다수 현대무용기관(네덜란드 ‘스프링댄스’, 프랑스 ‘CDC 툴루즈’) 등 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p>			
기관 및 단체	기관명	a.pass		
	유형	학교/기관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99년
	기관현황	브뤼셀 몰렌백생장 지구에 학교 소재		
	홈페이지	http://apass.be		
	<p>a.pass (에이패스 또는 아패스; Advanced Performance And Scenography Studies)는 공연예술의 연구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1999년 앤트워프에서 다수의 시노그래퍼(Scenographer)들이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공연예술에의 국제적/예술적/학문적 접근을 장려하는 기관으로 정착하여 현재는 후(後)석사(Post-master, 1년) 프로그램과 박사(PhD, 미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p> <p>a.pass는 다양한 장르 간의 융합 또는 탈장르적인 접근(Collaboration and Trans-Disciplinarity)을 지향, 장려하고 있으며 소속 학생은 학교의 비전에 부합하는 리서치 프로젝트와 커리큘럼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연구 과정에 있어 타 장르 종사 학생과 지속</p>			

적으로 교류한다.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은 토론과 연구를 병행하며, 졸업을 앞두고 최종 결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가진다. 특히 a.pass는 공연 등 작품 제작과 실연을 목표로 하는 여타 교육기관과 달리 학문적 연구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공연예술이 포섭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사회학, 경제학, 인류학적 주제 등)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토의 실시 및 그 방법론의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1, 2 : 에이패스 내부/외부)



\* TIP : a.pass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가 아닌 “연구기관”으로서의 학교를 지향하며, 학생 또는 그 소속 연구원이 기한 내 심도 있는 리서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타 장르의 연구원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기관 및 단체

기관명	La Venerie / 라 베느리		
유형	예술기관	장르	복합
운영주체	La Venerie a.s.b.l(비영리단체)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71년
기관현황	'Les Ecuries', 'L'espace Delvaux' 2개 장소 운영 (공연장, 작업 공간 등 보유)		
홈페이지	<a href="http://lavenerie.be/">http://lavenerie.be/</a>		

‘라 베느리’는 벨기에 워터마엘부아포르(Watermael-Boitfort) 지역의 예술기관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1년 벨기에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의 문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워터마엘부아포르 지역의 예술기관들이 모여 비영리단체 ‘라 베느리’를 설립한 것이 시작이다. 기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장하고 지역 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음악, 연극, 콘서트, 영화, 인터뷰, 컨퍼런스 등을 기획 및 제공하고 있다.

특히 ‘라 베느리’는 <Fete des Fleurs>라는 이름의 예술축제를 매 2년마다 주최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2018년으로 30회를 맞이한 유서 깊은 축제로서 매년 “꽃”과 관련된 소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게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길거리 예술(Arts dans la Rue)”의 창작과 시연을 지원하며, 주로 마임이나 광대극, 인형극, 무언극, 비정형 퍼포먼스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라 베느리’는 지역주민이 문화 및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틀리에를 운영하며, 연극이나 공예 워크숍, 글쓰기, 토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 [Tip] ‘라 베느리’는 한국문화원과도 활발하게 협력해 온 기관으로, 한국문화와 관련이 있는 음악, 무용, 영화, 전시를 제공하는 <한국의 숨결(Souffle Coreen)>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바 있다. 2017년 6월 제3회 축제에서는 <숙영낭자전> 판소리 공연과 더불어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다.

기관명	Trois C-L / 룩셈부르크 안무창작센터		
유형	연구기관	장르	무용/공연예술
운영주체	룩셈부르크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설립 ; 이후 Trois C-L A.S.B.L.(과거 'TDM Association')이 운영 중		
소재지	룩셈부르크	설립년도	1994년
기관현황	연습실, 상연 공간 등 보유 ; 기관 소속 아티스트 다수		
홈페이지	www.danse.lu		

기관  
및  
단체



(사진 : CLTROIS)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트로아 C-L(Trois C-L)'은 현대무용작품의 제작과 연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룩셈부르크 내의 신진 아티스트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현대무용계 종사자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중 끊임없이 다양한 마스터클래스와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베네룩스 지역의 여러 안무가들을 교수로 포섭한다. 특히 매 분기마다 "3 du Trois" 행사를 열어 작품의 상연과 아티스트 간 네트워킹, 포럼, 워크숍 등을 진행함으로써 현대무용작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술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해 EU와 룩셈부르크 정부가 Trois C-L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룩셈부르크 대학, 프랑스 CCN 안무센터 등 여러 예술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안무가가 베네룩스 지역을 포함해 룩셈부르크 국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상연 기회를 제공하고 투어 기금을 지원하는 등, 전적으로 현대무용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의미가 크다.

\* [Tip]

룩셈부르크의 대표적 무용기관 중 하나로, 매해 세계적 무용축제에 참여하며 소속 안무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벨기에 브뤼셀의 쿤스텐페스티벌, 독일 뒤셀도르프의 탄츠메세, 프랑스 리옹의 댄스 비엔날레 등 인근 지역 예술축제에 기관 단위로 참여하여 룩셈부르크 출신 안무가들을 후원한다. 또한 프랑스, 벨기에 소재 무용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교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룩셈부르크의 무용 수준을 제고하고자 다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다.

기관명	BOZAR / 보자르		
유형	아트센터(복합예술기관)	장르	복합/시각, 공연예술
운영주체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22년
기관현황	전시, 음악, 영화, 무용, 연극, 문학, 스튜디오 8개 부문 운영		

기관  
및  
단체

	공연장 3개 (Henry le Beouf(2천명 이상), 챔버뮤직 (5백명), 리사이틀 홀(2백명))및 다목적상연장과 전시장, 시네마테크 등 보유
홈페이지	HTTP://BOZAR.BE



(사진 : 보자르)

벨기에 브뤼셀의 왕립미술관과 악기박물관 근처에 위치한 'BOZAR(보자르, Palais des Beaux-arts)'는 단어 그대로 순수예술(Beaux-arts, fine arts)을 위한 예술기관이다. 벨기에 최고 수준의 복합예술센터로 손꼽히며, 유럽의 대표적인 콘서트홀 중 하나로 불리기도 한다. 1922년 설립되었으며 전시장과 컨퍼런스홀, 공연장, 영화관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위한 공간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순수예술센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설립된 것은 1922년이나, 벨기에 연방기구가 정식으로 지금의 이름 - '보자르(BOZAR)'라는 이름을 채택한 것은 2002년이다. 보자르 엑스포부터 보자르 아키텍처까지 전시, 음악, 영화, 무용, 연극, 문학, 스튜디오, 건축의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관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동시이다. 컨템포러리예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또한 영화나 클래식을 포함해 다양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와 비교되기도 한다. 보자르는 벨기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왈로니문화권 정부와 플랑드르문화권 정부 양쪽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외 여러 예술기관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전시, 클래식, 영화, 퍼포먼스, 컨퍼런스 등에 있어 풍부한 콘텐츠를 자랑하고 있다.

\* [Tip]

2002년부터 예술사학자 폴 뒤자르맹(Paul Dujardin)이 총감독을 맡아 재직 중이다. 보자르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앙리 홀(Henry Le Boeuf Hall)'은 약 2,2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대형 홀인데 매년 벨기에의 대표적인 클래식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보자르는 한국문화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례로 2018년 1월에는 BOZAR 산하 영화기관 '시네마테크'에서 홍상수 감독 회고전을 열었다. 이외에도 BOZAR가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을 위해 진행하는 'Next generation' 행사에 한국인 연주자들을 소개하는 등 영화, 음악, 전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II. 문화예술 디렉토리 <공간>**

공간	공간명	Kaai Theatre / 카이씨어터		
	유형	공연장(극장)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에디 반 겔더(회장) 외 카이씨어터 이사회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77년
공간현황	카이씨어터, 카이스튜디오 등 공연장 2개 및 레지던시 운영		
홈페이지	<a href="https://www.kaaitheater.be">https://www.kaaitheater.be</a>		

카이씨어터는 컨템포러리 댄스, 연극, 음악 및 기타 퍼포먼스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 공연장이다. 1977년 로열 플랑드르 극장(KVS, Royal Flemish Theatre) 100주년을 기념하는 비엔날레의 일부로 시작되었던 프로젝트는 1987년부터 영구화되어, 전위적이고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연장으로 자리 잡았다. 1977년 축제 당시 공연이 진행되었던 대형 텐트와 차고 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체 제작공연을 포함해 상당한 규모 이상의 공연을 올리는 '카이씨어터'와, 보다 소규모의 공연을 위한 '카이스튜디오(Kaai Studio)'를 보유하고 있다 - 카이씨어터는 브뤼셀에 위치한 동류의 극장 중 가장 큰 무대를 갖고 있으며, 10개 정도의 컴퍼니들이 매년 레퍼토리를 구성한다. 카이스튜디오는 한때 양조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소규모 공연과 워크샵이 진행된다.

1977년 당시 축제의 목표가 혁신적인 공연예술작품의 제작을 진흥하는 데 있었던 만큼, 여전히 실험성 강한 컨템포러리 아트센터로서 아동 및 청소년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것 또한 카이씨어터의 특징으로, 일례로 2009년 로사스 무용단이 초연한 이래 약 10년 만에 개작 형태로 돌아온 <자이퉁(Zeitung)>의 경우, 어른 관객을 위한 공연과 동반 아동을 위한 워크샵이 동시에 진행된다. 아동, 시각장애인 등 공연에서 소외될 수 있는 관객을 포함하여 신체적 실험을 진행하거나 정기적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등 실험과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연장이다.

(사진 1, 2 : 카이씨어터 전경 및 입구)



\* TIP : 카이씨어터의 프로그램은 연극, 춤, 음악, 워크샵, 컨퍼런스 및 기타 퍼포먼스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으며, 카이씨어터/카이스튜디오 외 브뤼셀 시내의 복합현대 예술공간 베어사우베르(Beursschouwburg)나 국립기관 보자르와도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 카이씨어터는 IETM의 설립 주축이기도 하며 이외 파트너로 브뤼셀의 아트센터 글로브 아로마(Globl Aroma), 공연축제인 씨어터페스티벌(TheaterFestival) 등이 있다.



공간명	Beursschouwburg / 베어사우베르		
유형	복합예술공간	장르	시각/공연예술
운영주체	아그나 스미스덤(회장) 외 베어사우베르 이사회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공간현황	영화 상영 공간, 전시 공간, 공연 공간 등 지하층을 포함한 1개 빌딩의 공간을 유연하게 운영		
홈페이지	<a href="http://Beursschouwburg.be">http://Beursschouwburg.be</a>		

네덜란드어로 “전시회”와 “극장”의 합성어인 베어사우베르는 브뤼셀 그랑플라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탈-장르 아트센터 (Multi-disciplinary art centre)를 지향한다. 연극, 퍼포먼스, 콘서트, 영화, 전시,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강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건물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의 1층과 2층은 전시장 또는 공연장으로, 지하는 콘서트장 및 영화 상영 공간으로 사용하는 식이며, 여러 공연과 전시가 동시에 진행되는 일도 많다. 젊고 혁신적인 작가와 작품을 선호하며, 특히 장르의 붕괴 또는 장르 간 협업에 관심이 높다.

베어사우베르는 이질적 요소를 융합하는 “가마솥(Melting-pot)”이 되도록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크게 전시(Expo), 음악, 퍼포먼스, 상연, 담론의 다섯 카테고리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여러 안무가, 영화제작자, 사진작가, 컨템포러리 뮤지션 등과 함께 작업을 진행한다.

(사진 1-4 : 베어사우베르 내부 및 사진 / 5 베어사우베르 전경)

공간





\* TIP : 1885년에 만들어진 건물을 1946년에 극장으로 개축하면서 베어사우베르가 탄생하였으며, 다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개축을 거쳐 지금의 건물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1960년대에 베어사우베르는 플랑드르 문화권 작품의 부흥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다수 플랑드르 연극들을 상연하였고, 1970년대에는 아동극을 전문으로 상연하고 있는 브롱크스 극장의 설립자 오다 반 네이겐이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베어사우베르는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성격을 굳히게 되었다. 매주 무료 영화 상연, 옥외 루프탑을 활용한 네트워킹 및 콘서트 개최 등으로 젊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공간**

공간명	Les Brigittines / 브리지티스		
유형	극장/공간	장르	공연예술/무용
운영주체	벨론 브리지티네(Bellone Brigittines, 비영리단체)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663
공간현황	메인 홀, 메조(Mezzo), 스튜디오(Studio) 및 아티스트 작업공간, 레지던시 보유		
홈페이지	<a href="http://www.brigitines.be/fr/">http://www.brigitines.be/fr/</a>		

Les Brigittines(브리지티스)는 현대무용을 전폭적으로 지원 및 상연하는 예술기관으로서 "Playhouse for Movement"라는 부칭을 가지고 있다. 1663년에 건축, 성당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브뤼셀 시가 구매한 후 개축하였고, 1970년대 후반부터 예술작품을 상연하기 시작해 지금은 현대무용 전문 극장으로 자리 잡았다.

성당 내 메인 홀 외에도 "메조(Mezz)", "스튜디오(Studio)" 및 아티스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다수 갖추고 있어 많은 현대무용가, 뮤지션 등이 레지던시 아티스트로 소속되어 있다. 매년 현대무용작품의 자체 제작과 아티스트를 위한 레지던시 운영, 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각지 파트너 레지던시 간 국제 교류 및 축제 진행 등이 끊임없이 진행되며, 2년에 한 번 <In Movement> 페스티벌을 개최해 벨기에 로컬 무용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브뤼셀 시의 현대무용 및 예술기관(Contemporary Art Center for Movement)"으

로 불리는 만큼, 프랑스어권 위주 브뤼셀 로컬 무용가에게 공간 및 상연기회 제공이 최우선이다. 브뤼셀 내 현대무용계 지원을 위해 마홀르(Marolles) 지역 아티스트들과 프로젝트 (“Participative project”)를 진행하고, 브뤼셀 연고 교육기관 ULB 및 P.A.R.T.S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한다.

즉 Les Brigittines는 전적으로 브뤼셀의 현대 무용가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별도의 파트너십 하 진행되는 현대예술행사(컨템포러리 뮤직 콘서트 등)를 제외하고는 타 장르의 공연은 거의 하지 않는다. 관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업적 목적의 세미나용 대관, 리셉션용 대관 등을 제외하고는 예술행사를 위한 대관도 하지 않는다. 즉 장소의 특이성과 현대무용 지원 기관으로서의 고유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벨기에 로컬 무용가들의 작품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극장이다.

(사진 1-3 : 브리지티نس 외경)



[tip] Les Brigittines가 개최하는 축제는 로컬 아티스트들을 위한 <In Movement(2~3월)> 비엔날레와 해외 아티스트들을 위한 <International Festival(9월)> 축제로 나뉜다. 2018년 <In Movement>에는 담드픽, 빔 반데키부스 등 벨기에 유명 현대무용단체와 아티스트가 다수 참여하는데, Les Brigittines는 “특정한 테마를 다루는 실험적 작품”이라는 기준에 따라 축제를 위한 작품을 선정한다. 동일한 기준은 <International Festival> 축제에도 적용되며, 2017년 가을에는 <The Power of the Night>라는 제목으로 베라 만테로, 파크 컴퍼니 등이 공연하였다.

공간명	La Balsamine (Theatre la Balsamine) / 라 발사민		
유형	극장/공간	장르	공연예술/무용
운영주체	메인 홀(Amphitheatre), 스튜디오(Studio), 리셉션 홀 및 작업공간		
소재지	2017.10.6.~2017.10.20	설립년도	1974
공간현황	브뤼셀, 벨기에		
홈페이지	<a href="http://balsamine.be">http://balsamine.be</a>		

**공간**

La Balsamine(라 발사민)은 브뤼셀 스타르베코 지구에 위치한 극장으로, 1974년 한 연출가(Martine Wijckaert)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나 1981년부터 기관화되어 컨템포러리 연극을 위한 기관으로 정착하였다. 2001년 현재의 모양을 갖춘 후 지금은 다양한 현대예술작품을 선정해 상연하는 극장이 되었다.

La Balsamine은 개방성과 실험성을 지향하며, 현대연극, 비주얼아트, 음악과 무용 공연 등을 상연하는 대형 홀(Ampitheatre)과 스튜디오(Studio) 이외에도 작업 공간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극장의 자체 작품 제작 및 극장 연계 아티스트(Associated artists)의 제작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커뮤니티의 예술 활동 진작을 위해 관객 참여형 교육이나 학생 워크샵 등도 실시하고 있다

왈로니-브뤼셀 연합을 비롯한 다수 프랑수어권 예술기관(왈로니-브뤼셀 연합, 프랑수어문화권위원회 안무연합(Choreographic stages network of the French-speaking community commission(COCOF), 왈로니-브뤼셀 인터내셔널, 왈로니-브뤼셀 연극/무용 등)과 파트너 관계로 지원금을 받아 아티스트들의 제작을 돕는다. 또한 벨기에 최대의 예술축제 중 하나인 쿤스텐페스티벌의 파트너 기관이기도 하여, 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극장이다.

(사진 1 : 발사민 외경)



[Tip] 처음 연극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한 Martine Wijckaert는 1994년부터 극장 운영에서 물러나 지금은 연계 아티스트(Associated artists)로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수의 극작가와 안무가, 시각예술가가 La Balsamine의 공간에서 작업 중으로, 극장은 다양성과 실험성 및 개방성을 지향하며 작업을 지원한다.

공간	기관명	Bibliotheque Solvay / 비블리오테크 솔베이		
	유형	공간/기관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Edificio SA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02년
기관현황	- 브뤼셀 EU 의회 근처 레오폴드 공원(Parc Leopold) 내 위치 - 도서관을 개축한 공연장 및 리셉션 공간 보유		
홈페이지	<a href="http://new.edificio.be/">http://new.edificio.be/</a>		

비블리오테크 솔베이(Bibliothèque Solvay, 솔베이 도서관)는 1902년 건축가 콘스탄트 보스만(Constant Bosman)과 앙리 반데벨트(Henri Vandevelt)가 아르누보 스타일로 설계한 고풍스러운 건물이다. 당시 건축가 에르네스트 솔베이와 브뤼셀자유대학(ULB)이 지원, 학문적 목적으로 설립된 건물이었으나 1991년 개축 및 1994년 개명된 이래 현재는 'Edificio SA'가 관리를 맡아 각종 문화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대관 중이다. 과거 열람실로 사용되었던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살린 공간에서 실내악 클래식 공연, 미디어아트 전시, 기타 퍼포먼스 공연 등을 진행되고 있다. 건축 당시의 양식이 남아 있어 고유의 심미성을 자랑하며, 2018년 5월에는 벨기에 최대의 예술축제인 '콘스텐 페스티벌'과 협력하여 관객참여형 퍼포먼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 1-3 : 비블리오테크 솔베이 내/외관  
\* [TIP]

관리기관 '에디피시오 솔베이(Edificio Solvay)'는 비블리오테크 솔베이 인근에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위한 공간 '콘서트 노블(Concert Nobel)' 역시 갖추고 있다. 대관과 케이터링 서비스 수입 등으로 두 공간을 운영 및 관리한다. 관리기관 스스로 프로그래밍이나 큐레이션은 진행하지 않으며, 대신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나 대관을 통해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간명	<b>Concertgebouw Brugge / 콘체르트헤바우 브뤼헤</b>		
유형	공간/기관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concertgebouw Brugge		
소재지	브뤼헤, 벨기에	설립년도	2002년
공간현황	대형 콘서트홀(1,200석 규모), 실내악홀(300석 규모) 등 보유		
홈페이지	<a href="http://www.concertgebouw.be">http://www.concertgebouw.b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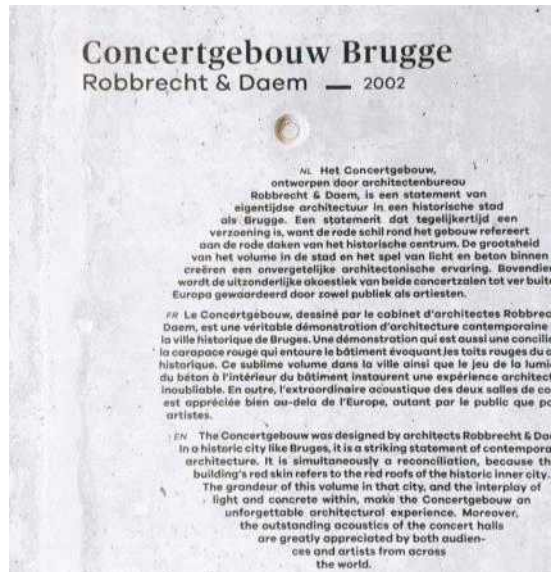
**공간**

콘체르트헤바우는 브뤼헤의 대표적인 극장이자 문화 콤플렉스로, 브뤼헤 예술공간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브뤼헤의 문화 부흥을 위한 "Brugge Cultural Capital of Europ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으며, 내부에 약 1,200석 규모의 대형 콘서트홀(Concertzaal)과 약 300석 규모의 실내악 전용 홀(Chamber hall) 외에도 전시공간과 리허설 공간, 소형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다.

대형 홀의 경우는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을 위한 공간으로, 소형홀은 실내악 전용 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이외에도 여러 공간이 전시, 워크샵, 컨퍼런스, 레지던시, 리허설 등을 위한 목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콘체르트헤바우는 음악 또는 무용계에 종사하는 아티스트들을 위해 다수의 레지던시 및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클래식 아티스트 레지던시와 컨템포러리 뮤직 아티스트 레지던시, 고음악 아티스트 레지던시 및 현대무용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운영 중이다.

(사진 1-4 : 콘체르트헤바우 내/외관)



\* [tip] 콘체르트헤바우는 브뤼헤예술센터(Cultuurcentrum Brugge)와 함께 브뤼헤 예술계의 두 중심 축을 이룬다. 두 기관은 함께 매년 12월 현대무용축제 <디셈버 댄스(December dance)>를 개최하며, 콘체르트헤바우는 대형 홀과 워크샵 공간 등을, 브뤼헤예술센터는 시립극장(Stadsschouwburg)과 막달레나홀(MaZ), 비어코프(Biekorf) 극장 등을 제공한다. 현재 콘체르트헤바우의 댄스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 샘 레이미커스는 2007년 <디셈버 댄스> 축제를 기획 및 시작한 장본인으로, 2018년까지만 콘체르트헤바우의 댄스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이후부터는 오솔로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하다.

공간	공간명	KVS (Royal Flemish Theatre) / 로열 플레미쉬 극장		
	유형	극장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KVS (Royal Flemish Theatre)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852년
	공간현황	대형 홀(KVS BOL), 중소규모 홀(KVS BOX), 컨퍼런스 공간 등 보유		
	홈페이지	www.kvs.be		

KVS(로열 플레미시 극장, Royal Flemish Theatre)는 1852년 설립, 1887년 개축된 후 “Royal” 호칭을 수여받은 브뤼셀의 대표적인 극장이다. 현재는 클래식과 컨템포러리, 음악, 무용, 연극 등 여러 종류의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센터로서 1800년대 건물 양식을 간직한 옛 건물과 신축건물 두 개를 보유, 운영 중이다.

벨기에 플랑드르 문화권의 중요 기관 중 하나로 벨기에 시 정부와 플랑드르 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다. 고전작품과 신규작품, 해외 초청작품을 활발히 상연할 뿐만 아니라 연출가, 안무가, 작가, 음악가, 극작가, 퍼포머 등을 위한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지역 커뮤니티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구 건물의 공연장 ‘KVS Bol’은 약 5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으로 콘서트부터 현대무용까지 여러 장르의 공연을 상연한다. 신축 건물의 ‘KVS Box’는 약 200명 정도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외에도 컨퍼런스나 세미나,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루프탑 ‘TOP’과 리셉션용 공간 ‘Atrium’, ‘Foyer’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KVS에서는 안무가 빔 반데키부스, 비주얼 아티스트 콜렉티브 Farm Prod 등이 작업, 작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사진 1-2 : KVS외관 / 3 : KVS BOX / 4 : KVS BOL )



\* [Tip] 브뤼셀 지역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랑드르 문화권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로니-브뤼셀 문화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에 소속되는 예술기관은 주로 플랑드르 연합의 지원을, 후자는 왈로니-브뤼셀 연합의 지원을 받는다. 상연 프로그램의 종류도 소속 지역 및 파트너 연합의 영향을 받아, KVS에서는 네덜란드어 공연이 자주 상연되는 반면 왈로니 국립극장(National Thatre)에서는 프랑스어 공연을 위주로 상연한다. 그러나 벨기에의 공용어가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이고 브뤼셀 시의 정책이 뉴스부터 간판까지 모든 내용을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로 병기하는 것인 만큼, 많은 공연장이 프랑스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공간명	Les Ateliers Claus / 아틀리에 클로스		
유형	콘서트홀	장르	음악/공연예술
운영주체	Les Ateliers Claus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2006년
기관현황	- 라이브음악홀 2개 및 아티스트 레지던시용 스튜디오 운영		
홈페이지	www.lesateliersclaus.com		

공간

아틀리에 클로스(Les Ateliers Claus)는 2006년 설립된 라이브 음악 공연장으로, 브뤼셀 생질(Saintgilles)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클로스 가문이 과거 창고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구입 후 공연장 및 아티스트 레지던시 목적으로 개축하였고 현재 “아틀리에 클로스”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주로 뮤지션과 드라마투르기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레지던시에 입주, 활동하고 있다.

비상업적인 장르의 음악을 상연함으로써 음악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연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티켓 가격 역시 젊은 관객층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한다. 컨템포러리, 얼터너티브, 일렉트로닉, 월드뮤직 등에 초점을 맞추고 브뤼셀 로컬 및 해외 아티스트의 공연을 선정 제공한다. 음악 외에도 실험적인 예술을 선호하여, 영화 상연이나 컨템포러리 댄스 공연을 갖기도 한다 - 약 200명 정도의 관객을 위한 홀과 100명 정도 수용가능한 홀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형홀에서는 주로 필름 상연, 세미나 진행, 음악 레코딩 등을 진행한다. 즉 아틀리에 클로스는 일종의 대안예술공간으로서 다양한 장르를 포용하며, 개방적인 관객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1-3 : 아틀리에 클로스 내/외관

\*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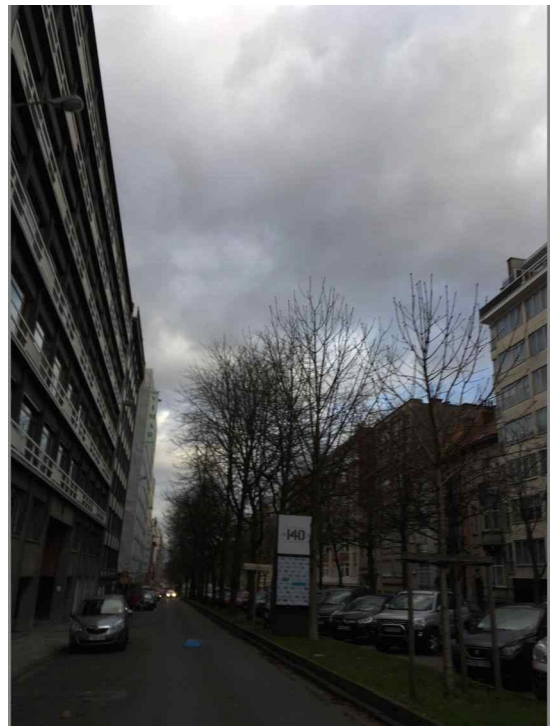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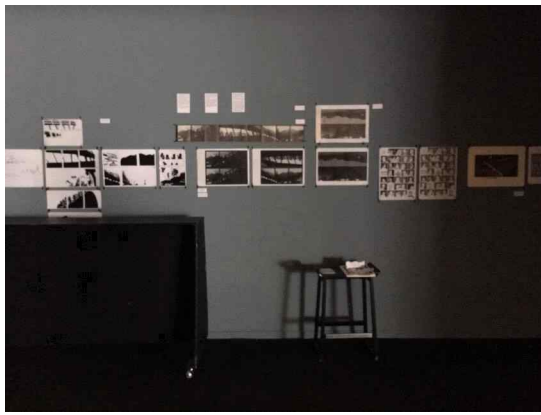
자체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상연하는 이외에도, 아틀리에 클로스는 브뤼셀 곳곳의 다양한 기관 또는 공연장과 협력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례로 브뤼셀의 대규모 라이브홀 중 하나인 ‘앙시엔 벨지크(Ancienne Belgique)’, 현대무용전문기관 ‘브리지틴스(Les Brigittines)’와는 상시 협력하여 음악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벨기에의 대표적 글로벌 문화축제 ‘유로팔리아(Europalia)’와도 협력하고 있다. 올해 유로팔리아 주빈국 아티스트로 초청받은 인도네시아 뮤직 듀오 세냐와(Senyawa) 등이 아틀리에 클로스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다.

공간명	Le 140		
유형	극장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concertgebouw Brugge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63년
공간현황	약 500석 좌석 규모 공연장 및 유동적으로 운영 가능한 홀 이외 기타 아티스트 작업공간 보유		
홈페이지	http://le140.be		



140(Le140)은 벨기에 브뤼셀 스하르베크(Schaarbeek) 지역에 위치한 공연장으로, “오늘의 예술(Spectacles d’aujourd’huk ; Performances of these days)”을 지원하고자 1963년에 설립되었다. 특정한 장르에 치중하기보다는 “융합장르적(Inter-disciplinary)” 공연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여, 음악과 무용, 연극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현대성과 실험성이 강한 작품을 선정해 상연하고 있다.

해외 아티스트의 공연 역시 자주 이루어지며, 약 5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아티스트의 의도나 작품 분위기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규모를 100석 또는 300석 규모로 조정하여 공연을 제공하는 이외에도, 개방형 공간을 활용해 시각예술작품의 전시와 콘서트 상연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스하르베크 지역 주민을 위한 오픈형 콘서트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사진 1, 2 : Le140 내/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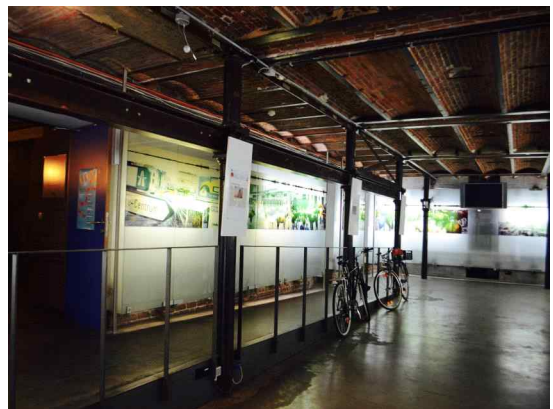
\* [tip] 역사가 오래된 공연장 중 하나로서 음악, 연극, 무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아티스트들이 다녀갔다. 뮤지션으로는 세르주 갱스부르, 텔로니우스 몽크, 핑크 플로이드, 퀸, 아스트로 피아졸라, BB 킹 등이 140에서 공연한 바 있다. 벨기에의 대표적 현대무용가인 안네 테레사 드 키에르스마크와 빔 반데키부스를 포함해 독일의 피나 바우쉬, 프랑스의 마틸드 모니에도 다녀갔으며 일본의 부토 무용가인 오노 가즈오도 140에서 공연을 가졌다.

공간	공간명	La Raffinerie / 하피너리		
	유형	극장/기관	장르	무용/공연예술
	운영주체	Chareloi Danse (알로니-브뤼셀연합 안무센터)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79년
	공간현황	대형 홀 1개 외 세미나/컨퍼런스/워크샵/리허설 진행가능 중소규모 공간 다수 보유		
	홈페이지	<a href="http://charleroi-danse.be/">http://charleroi-danse.be/</a>		

하피너리(La Raffinerie)는 브뤼셀 몰렌벡생장(St-Jan-Molenbeek) 지역에 위치한 공연장으로, 19세기에 세워진 설탕 정제공장을 개축한 공간이다. <Plan K>라는 문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79년부터 예술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무용, 연극, 콘서트,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다가 샤를루아 당스(Charleroi Danse), 즉 왈로니브뤼셀연합 안무센터가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서 현재는 현대무용작품 및 아티스트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더스트리얼 건축 양식의 건물로 트리분(Tribune) 객석을 갖춘 대형 홀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샵, 리허설 등 여러 규모 및 목적의 행사를 위한 중소규모 공간을 다수 갖추고 있으며 특히 현대무용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상시 진행된다.

벨기에 로컬 아티스트와 해외 아티스트의 작품을 모두 선정, 제공하나 크리스티앙 리조, 모니아 몽탈리, 올리비아 그랜드빌 등 프랑스어권 아티스트 공연의 비중이 높다. 왈로니-브뤼셀연합, 브뤼셀안무연합을 비롯해 브뤼셀의 여러 예술기관(현대무용기관 브리지틴스, 공연예술네트워크 IETM 등)과도 파트너 관계에 있다. 특히 카이씨어터(KAAI Theatre)와 함께 브뤼셀 몰렌벡생장 지역의 주요 현대예술기관 중 하나로, 과거 국립현대무용단과 작업하였던 아예린 파롤린(Ayelin Parolin) 등이 레지던시 아티스트로서 상주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사진 1 : La Raffinerie외관 / 2-4 : La Raffinerie 내부)



\* [Tip] 샤를루아 당스(왈로니-브뤼셀 연합 안무센터)는 왈로니-브뤼셀연합 소속 예술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왈로니아 로열 발레단에 그 전신을 두고 있으며 컨템포러리 무용에 집중하기 위해 프레데릭 플라망드가 설립하였다. 2017년부터 프랑스 CDC 툴루즈 안무센터 출신의 아니 보치니(Annie Bozzini)가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대무용 아티스트의 작품 제작과 상연, 리서치 및 트레이닝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샤를루아 당스는 브뤼셀의 하피너리 외에도 샤를루

아 지역에 '에큐리(Les Ecuries)' 공간을 함께 운영 중이다. 전자는 주로 현대무용 상연 목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후자는 아틀리에,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한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간명	MIM (Musical Instruments Museum) / 악기박물관		
유형	박물관	장르	음악/공연예술
운영주체	벨기에 문화부(Minister of Culture) ; 왕립미술역사박물관(Royal museums of Art and History)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877년
기관현황	4개층 전시 공간 운영 및 1개 공연장 운영(200석 규모)		
홈페이지	www.mim.be		

**공간**

MIM (Musical Instruments Museum, 악기박물관)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전세계의 다양한 악기들을 전시 및 소장하고 있다. 1877년 브뤼셀 왕립음악원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설립된 이후 1992년부터는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프로젝트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고음악과 현대음악, 팝음악과 전통음악을 포괄하며 거의 모든 장르와 국가의 악기를 다루고 있다.

약 7천 점에 달하는 악기를 보관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소장품도 많다. 스코틀랜드 백파이프나 티베트의 뼈피리, 아프리카의 잠베 등 각국의 전통악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인기가 높다. 가족 단위의 관람객도 많이 찾는 편이며, 약 200석 규모의 암피씨어터(Ampitheatre) 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콘서트를 개최한다.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를 위한 악기 복원 워크샵, 작곡 워크샵 등도 다수 운영하는 바, 근처의 왕립미술관, 보자르(Bozar) 등과 함께 브뤼셀의 대표적 박물관으로 꼽힌다.



(사진 1-3 : MIM공연장 외관 및 내부)

\*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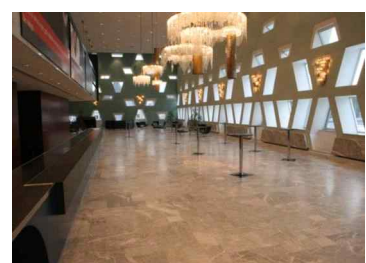
지하 1층과 1층, 2층, 4층에서는 상설전을 진행한다. 4층은 건반악기를, 2층은 19세기 이전의 관악기와 현악기를 전시하는 식이다. 여러 나라들의 악기를 전시하고 있는 만큼, 각국의 문화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17년 10월부터는 에스토니아 정부와 협력하여 에스토니아의 민속 악기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한국문화원과도 협력한 바 있다.

	공간명	Les Theatre de la Ville de Luxembourg / 룩셈부르크 극장		
	유형	극장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소재지	룩셈부르크	설립년도	1964년
	공간현황	Grand Theatre 내 900석 규모 Grande Salle, 250석 규모 스튜디오, Theatre des Capucins 내 약 250석 홀 보유		
	홈페이지	http://www.theatres.lu		

공간

룩셈부르크 극장(Les Theatres de la Ville de Luxembourg)은 룩셈부르크 공국의 수도인 룩셈부르크 시에 위치하고 있다. 1964년 개관, 1869년부터 룩셈부르크 공연예술의 중추 역할을 해 온 '카푸친 극장(Theatre de Capucins)'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2년 개축을 거쳐 조명과 음향 등 무대 제반장치를 개선하면서 룩셈부르크 전체를 대표하는 극장으로 거듭났다.

연극과 오페라, 클래식 발레와 컨템포러리 댄스 등 전통과 현대예술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공연장은 약 950명, 스튜디오공연장은 약 2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카푸친 극장 역시 약 25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규모로, 룩셈부르크 극장은 세 개의 홀을 운영하며 다채로운 작품을 제공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골고루 상연하며, 오페라나 클래식 발레와 같이 대형무대가 필요한 작품도 자주 초청하는 편이다. 해외 아티스트가 공연하는 경우에는 그 오리지널리티를 존중, 원작 언어 그대로 작품을 상연하는 것 역시 특징이다. 대부분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등 인근 지역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룩셈부르크의 특징을 반영하는 동시에, 단지 룩셈부르크 지역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관객들까지 유치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진 1-3 : 룩셈부르크 극장 외관 및 내부)

\* [TIP]

룩셈부르크 극장은 여러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유치한다. 대표적인 파트너 기관으로는 파리 시립 극장(Theatre de la ville de paris), 샹젤리제 극장(Theatre des champs-elysees), 런던의 새들러스 웰(Sadler's Wells), 브뤼셀의 라 모네(La Monnaie) 등이 있다. 2018년에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그리스 안무가 드미트리 파파이오아누, 영국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 미국의 마사 그라함 댄스 컴퍼니가 룩셈부르크 극장을 방문한다. 안은미 컴퍼니 역시 2018년초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공간명	Theatre Varia / 바리아 극장		
	유형	극장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05년
	공간현황	대형홀 '그랑바리아', 소형홀 '쁘띠바리아' 운영		
	홈페이지	http://varia.be		

공간

브뤼셀의 익셀 지구에 위치한 바리아 극장(Theatre Varia)은 1905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극장이다. 당시 브뤼셀 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던 연극 및 기타 공연예술 부흥 프로젝트의 일부로 출발하였으나, 운영상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은 브뤼셀의 대표적인 극장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프랑스어문화권의 연극 제작과 상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출발했지만 현대무용 작품을 다수 제공해온 바 '현대무용 전용 극장'으로도 불린다. 대형 홀 '그랑 바리아(Grand Varia)'와 소형 홀 '쁘띠 바리아(Petit Varia)' 두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극과 무용 위주의 프로그래밍을 진행한다. 연극단체와 무용단체 각 1개 팀('Clinic Orgasm Society'와 'As Palavras')이 상주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들의 작품 외에도 다른 예술기관과 공동 제작한 연극 및 무용작품이나 여러 초청작품들이 무대에 오른다.



(사진 1, 2 : 바리아 극장 외관)

\* [TIP]

바리아 극장은 벨기에 브뤼셀의 프랑스어문화권(왈로니문화권)을 대표하는 공연예술기관이기도 하다. 브뤼셀 왈로니 정부 및 왈로니권 예술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벨기에 최대의 예술축제인 '쿤스텐페스티벌(Kunstenfestivaldesarts)'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한편 2017년에는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국립현대무용단의 '혼합(Immixture)'을 3일 동안 상연, 전석 매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공간	공간명	ARGOS / 아르고스		
	유형	전시공간 / 기관	장르	시각예술
	운영주체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89년
	공간현황			
	홈페이지	argosarts.org		
	<p>브뤼셀 시내에 위치한 'ARGOS(아르고스)'는 "영상 및 미디어아트를 위한 예술공간"을 지향한다. "현대의 예술"이라 할 수 있는 영화와 미디어아트 작품을 위한 기관으로서는 벨기에 최초이자 최대를 자랑하며, 유럽 전역을 포괄하는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하고 있다. 영상작품의 보존과 복원, 제작과 상연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공간을 운영하며, 관객에게 다양한 시청각적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작품 상연과 전시 외에도 퍼포먼스, 워크숍, 포럼과 네트워킹 세션 등을 제공한다.</p> <p>혁신적인 작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제작/편집시설을 갖추고 아티스트들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약 5,000개 작품에 더하여 4,200여권의 책과 600권의 도록을 소장 중이다. 보존과 복원은 아르고스의 중요한 가치이므로, 아날로그 형식으로 제작되었던 작품을 복원하고 아카이브로 만들어, 관객들이 작품 제목이나 작가의 이름으로 예전 작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유럽 전지역의 영상작품을 포괄하는 프로젝트 'DCA Project', 'GAMA Project'를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출판부를 운영하여 영화 및 영상예술에 대한 연구결과를 출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p> <p>* [TIP] 아르고스는 플랑드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플랑드르계 예술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르고스 내에서 영상의 모든 편집 및 후제작(Post-production)이 가능하도록 인하우스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많은 예술가들이 이를 이용할수 있도록 장려한다.</p>			
공간	공간명	Q-Factory Amsterdam / 큐-팩토리		
	유형	콘서트/음악교육기관	장르	음악/공연예술
	운영주체	Q-Factory (Astoria Vastgoed, Jan't Hoen사 공동경영)		
	소재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설립년도	2015년
	공간현황	2개 공연장 및 다수 리허설룸, 사무공간, 호텔과 카페, 식당 등		
	홈페이지	http://q-factory-amsterdam.nl/		
	<p>큐-팩토리(Q-factory)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북쪽 'Oostpoort' 지구에 위치한 공연장으로, 몇 년 전부터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지역의 "음악적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한 건물 안에 두 개의 공연홀을 비롯해 다수의 스튜디오 및 공연장, 리허설 룸, 레코딩 룸 등을 모두 갖추었다. 뿐만 아니라 음악 에이전시나 프로모션 회사, 악기 가게 등이 입주해 유기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음악 학교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뮤지션들이 공연 전후로 머물 수 있는 호텔, 방문객들을 상시로 환영하는 카페와 레스토랑도 있어 그야말로 음악만을 위한 복합 콤플렉스라 불릴 만하다.</p> <p>아티스트와 업계 관계자들, 관객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음악업계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공략하는 것이 큐-팩토리의 목표다. 사운드 스튜디오와 에이전시, 프로듀서와 예비 아티스트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을 지향한다. 공연장의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팝과 록은 물론이고 테크노, 일렉트로닉, 재즈 등 여러 장르의 공연이 펼</p>			

쳐진다. 1,000명 가까이 수용 가능한 대형 홀에서는 한국 밴드 '혁오(HYUK OH)'가 공연하여 매진 사례를 기록했으며, 300명 규모의 소형 홀에서는 2018년 4월 브뤼셀한국문화원과 협업해 인디밴드 '새소년'과 '랜드오브피스',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의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오래된 건물을 개축, 2015년 3월 정식으로 문을 연 이후 팝 음악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TIP : 큐-팩토리는 “음악을 위한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장소로 명망이 높다. 뮤지션들에게 리허설, 연습, 레코딩 등을 위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서, 예비 아티스트들에게 프로덕션과 교육기관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곳으로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힙 플레이스”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 Ⅲ. 문화예술 디렉토리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BSPF(Brussels Street Photo Festival) / 브뤼셀 거리사진축제		
유형	축제/행사	장르	시각예술/사진
운영주체	CAKRI		
개최시기	2017.10.6.~2017.10.20	시작년도	2016
개최도시	브뤼셀, 벨기에		
참가규모	N/A (주최측 선정작가 10명)		
홈페이지	Http://www.bspfestival.org		

#### 축제 및 행사

올해 10월 6일부터 열린 브뤼셀 거리사진축제(BSPF, Brussels Street Photo Festival)는 단어 그대로 “스트리트 포토”, 즉 거리사진을 주제로 삼고 있는 문화 프로젝트이다. 여태껏 하위문화(Sub-culture) 또는 틈새문화(Niche-culture)로 간주되었던 거리사진이 한 도시를 관찰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즉 도시의 건물이나 도로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고려 및 연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BSPF 프로젝트의 취지이다. 따라서 BSPF는 브뤼셀이라는 특정한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두 개의 축, “지역성(Locality)”과 “국제성(Internationality)”을 보여주는 거리사진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매그넘 사진작가 토마스 드보르작과 제롬 세시니,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엘레나 체르니쇼바, 포토-저널리스트 안스 브리스 등이 게스트 작가로 참여했다. 행사는 전시, 상영, 토론, 라운드테이블, 포트폴리오 리뷰, 워크숍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BSPF로 접수된 사진 중 최종심에 오른 작품은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최 측이 선정한 게스트 작가들의 작품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전시된다. 개방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행사로서 이미 명망이 높은 사진가들뿐만 아니라 신진 작가들에게도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전시는 무료로 진행된다.

\* TIP : BSPF를 구상하고 조직한 카크리(CAKRI)는 브뤼셀의 문화적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 제작하는 단체이다.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며, BSPF 외에도 공공 장소를 위한 프로젝트나 교육 프로젝트 등을 지원해 왔다. 도시 연구 플랫폼 <브뤼셀 뉴스룸>도 카크리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Photo Brussels Festival / 포토브뤼셀 페스티벌		
유형	축제/행사	장르	시각예술/사진
운영주체	헝가아트센터(Hanger Art-centre)		
개최시기	2017.11.17.~2017.1.20	시작년도	2016
개최도시	브뤼셀, 벨기에		
참가규모	약 200개 작품 전시 (주최측 선정 작가 15명 내외)		
홈페이지	<a href="https://www.photobrusselsfestival.com/">https://www.photobrusselsfestival.com/</a>		

포토브뤼셀 페스티벌은 10월 초 열리는 브뤼셀 거리사진축제(BSPF, Brussels Street Photography Festival)에 연이어 개최되는 사진예술 행사다. 2016년 처음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어, 사진예술에 대한 벨기에의 상당한 애정을 드러낸다.

포토브뤼셀은 매년 하나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사진작품을 소개하려 한다. 작년의 주제가 지구("Loving earth")였다면 올해의 화두는 초상("Portrait")으로, 초상사진의 의미에 대해 아티스트들이 모여 여러 질문을 제기할 예정이다.

19세기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값비싼 초상화를 그릴 특권을 누리지 못했던 시민계급이 사진을 적극적으로 수요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진작가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기록해 왔고 지금은 스스로 자기 모습을 연출, 기록하는 "셀피(Selfie)"가 또 다른 형태의 초상사진으로 자리를 잡았다. 방식은 다양해졌을지언정 사진의 대상(인물)이 속한 시공간을 포착하고 인물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초상사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초상사진은 과연 컨템포러리 예술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가? 올해의 포토브뤼셀은 이런 문제의식을 기저에 두고, 아날로그와 디지털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가장 최신의 기술까지 포함하여 초상사진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브뤼셀의 익셀 지구에 위치한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헝가(Hangar)가 주최하며, 2017년에는 사진, 회화,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해 온 장-클로드 바우터스를 포함한 아티스트 16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는 한국의 강영호도 이름을 올렸으며, 2016년 박형렬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 작가가 선정되었음에 벨기에한국문화원은 포토브뤼셀과 협업, 양국의 사진작가들이 함께 작품을 전시하는 <동화의 순간(Synchronizing Instance)>전을 연다. 11월 14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한국의 강영호, 변순철과 벨기에의 프랭키 버덕트, 토마스 드 바우터스(2016년 포토브뤼셀 선정 작가)의 작품이 나란히 소개될 예정이다.

포토브뤼셀은 아티스트와 관람객 모두 사진에 대한 도발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전시, 쇼케이스,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앤트워프왕립예술학교, 라캄브리고 등 시각예술학교 등도 참여하여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포토브뤼셀은 사진예술에 온전히 목적을 두고 그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며 여러 국적과 연령대의 아티스트들에게 의견 개진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행사로서 의의가 있다.

\* TIP : 앤트워프왕립예술학교, 라캄브리고등시각예술학교 등이 사진으로 이름이 높은 가운데, 벨기에



는 유수의 컨템포러리 사진 갤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1978년 설립된 콩트르티프 미술관이 유명하여, 콩트르티프에서는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작품을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전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실험적인 전시를 주로 진행하는 헤시클라트(Recyclart), 컨템포러리 사진을 전시하고자 리에주문화센터의 일부로 설립된 새틀리트 갤러리(Satellite Galerie), 기획자 겸 콜렉터인 잉그리드 듀스가 설립한 잉그리드 듀스 갤러리(Ingrid Deuss Gallery) 등이 있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Brussels Cafe-theatre Festival / 브뤼셀 카페-떼아트르 페스티벌		
유형	축제/행사	장르	공연예술/음악
운영주체	COCOF (프랑스어권공동체위원회)		
개최시기	2017.11.1.~2017.11.26.	시작년도	2016
개최도시	브뤼셀, 벨기에		
참가규모	16개 카페-씨어터 참여		
홈페이지	www.bruxellesurscenes.be		

“브뤼셀 온-스테이지(Bruxelles sur scenes”라는 별제를 달고 있는 브뤼셀 카페-떼아트르 페스티벌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공연예술축제다. 2016년 11월 처음으로 행사를 개최한 COCOF(프랑스어권공동체위원회)의 취지는 지역 문화행사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브뤼셀에 위치한 카페 떼아트르(카페 씨어터), 즉 실험적인 연극과 소규모 연주회를 주로 여는 카페식 극장들이 참여하며, 올해는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2016년 15개의 카페가 나홀 동안 개최했던 축제가 약 한 달로 늘어난 것이다. 행사 기간 동안 16개의 카페가 식사 또는 음료와 함께 카페 고유의 레퍼토리, 즉 음악이나 연극, 코미디 공연 등을 제공하게 된다.

소규모 공연장에 맞는 여러 실험적인 공연들이 더 많은 관람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COCOF는 모든 카페에서 한 번씩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통합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COCOF는 이를 계기로 브뤼셀의 풍부한 공연문화 중 일부를 이루고 있는 카페떼아트르의 공연들이 재조명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제각각 카페가 특징 있는 공연을 제공하는 만큼, 주최 측은 카페의 레퍼토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1978년 설립된 이후 젊은 연극인들에게 무대를 제공해 왔으며 작가 브루노 코펜스, 배우 파스칼 비베르가 공연하기도 했던 라 수파프(La Soupape), 1960년부터 음악, 코미디, 연극 등을 올려 온 로스 아 모엘(L'os a moelle) 등이 참여한다.

\* TIP : 브뤼셀에는 1935년 설립된 아틀리에 마르셀 아스티르(L'atelier Marcel Hastir), 1960년 설립된 로스 아 모엘(L'os a moelle), 등 역사가 오래된 카페 떼아트르가 다수 있다. 협소한 장소에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공연이 이루어지며, 전통적인 연극이나 라이브 음악부터 배우의 즉흥 대사로만 이루어진 공연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실험한다. 브뤼셀의 카페떼아트르는 공연예술이 발달한 벨기에의 서브컬처 중 일부를 이루고 있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World Christmas Circus (Wereldkerstcircuit) / 월드 크리스마스 서커스		
유형	축제/행사	장르	서커스/공연예술
운영주체	암스테르담 카레 왕립극장 (Koninklijk Theatre Carre)		
개최시기	2017.12.21.~2018.1.7.	시작년도	1985
개최도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참가규모	2016년 약 5만 명 이상 참관 및 120명 아티스트 참가		
홈페이지	https://carre.nl/voorstelling/wereldkerstcircuit		

매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카레 왕립극장(Koninklijk Theatre Carre)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서커스 축제이다. “서커스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해 오직 서커스만을 주제로 삼고 약 3

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진행된다. 세계 서커스 축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축제로 손꼽히며, 각지의 아티스트 및 단체들이 참여해 무대를 선보인다. 원래 카레 왕립극장이 서커스 전용극장으로 설립되었던 만큼, 이 축제기간 동안에는 극장의 모든 설비 및 구조가 서커스 공연에 적합하게끔 재편된다.

1887년 극장을 설립한 오스카 카레(Oscar Carre)는 왕립 네덜란드 서커스(Royal Dutchircus)를 조직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후 극장은 주로 연극, 콘서트 등을 상연하다가 점차 겨울 시즌 동안 관객들에게 서커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후 건물이 재건되고 1985년부터 서커스 축제가 시작되면서, 축제는 세계 정상급의 서커스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로 자리잡는다. 올해로 33회를 맞이한 행사의 주제는 “광대(Clowns)”로, 전통적인 광대극에서부터 컨템포러리 광대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나코의 서커스 드 몬테카를로, 프랑스의 세계서커스축제 등에서 수상한 제멘 슈스터(일명 “Housche-ma-Housche”)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국내외의 서커스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석하며, 카레 극장이 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로서 러시아, 베트남, 중국, 북한, 남아프리카의 서커스단도 참여한 바 있다. 암스테르담의 중요한 문화적 전통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행사이다.

[TIP] 아크로바틱, 동물 묘기, 자전거 타기, 저글링, 광대 코미디 등 다양한 서커스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축제 기간 동안 거의 만석을 기록한다. 150년 역사의 미국 서커스단 ‘링글링 브라더스’를 비롯해 세계 서커스 축제의 수상자들이 한데 모여온 자리로 유명하다. 카레 극장은 서커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장으로, 지금은 연극과 뮤지컬, 콘서트, 카바레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지만 역시 서커스로 가장 유명하며 1087년에 왕실로부터 인증을 받아 “카레 왕립극장”으로 개칭하였다.

축제/행사명	Zinneke Parade / 지네케 퍼레이드		
유형	축제/행사	장르	복합/공연예술
운영주체	지네케 (Zinneke A.S.B.L)		
개최시기	매 짝수해 5월	시작년도	2000년
개최도시	벨기에 브뤼셀		
참가규모	150개 이상 예술단체 및 아티스트 참여		
홈페이지	<a href="https://zinneke.org">https://zinneke.org</a>		

**축제 및 행사**

비영리단체 Zinneke (a.s.b.l)가 주최하는 비엔날레 <Zinneke Parade (지네케 퍼레이드)>는 매 짝수 해마다 개최되는 현대예술행사이다. 2000년 브뤼셀 시의 문화다양성을 기념하는 퍼레이드로 시작한 후 2018년 제10회를 맞이하였고, 현재는 약 150개 이상 예술단체 참여 축제로 발전하였다. 2016년에는 <Flemish Culture Prize>의 민간축제부문 상을 받기도 했다.

“Zinneke”는 떠돌이 개를 의미하는 브뤼셀 방언으로, 다양한 국적 및 인종이 공존하는 브뤼셀을 상징하는 단어이다. 즉 여러 지역과 장르 간 혼종, 협업, 네트워킹을 통해 예술 및 사회적 동력을 제고하는 것이 주최기관과 퍼레이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짝수 해의 퍼레이드를 위해 2년간 기금을 조달하고, 참여 단체와 아티스트를 모집하며 축제를 움직이는 하부 조직 “지노드(Zinnode)”를 구성한다. 이후 지노드는 퍼레이드까지 워크샵 및 프리세션(Pre-session)을 10~15차례 정도 가지며 5월 퍼레이드로 축제를 마무리한다. 즉 최종 시연보다 과정을 위한 축제로서, 이미 완성된 작품을 선보이는 장이 아니라 아티스트

또는 일반 참가인의 아이디어에 기반 해 여러 명이 새로운 작품을 공동 창작하는 과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가깝다. 매 행사마다 특정한 테마를 지정해 그에 대해 지노드들이 워크숍 및 작품 창작을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Disorder”, “Tentation”, “Fragile”에 거쳐 2018년에는 “Illegal”을 주제로 퍼레이드가 열린다. 지역 거주인과 예술단체, 아티스트, 학교, 정부기관 등 다양한 규모의 참가인이 운집하는 자리이다.

[TIP]

※ 역대 Zinneke Parade 개최일 및 주제

- 2000.05.27. 1회 : La Ville 도시
- 2002.05.25. 2회 : Zinnergies 지네케-에너지
- 2004.05.24. 3회 : Le corps dans la ville 도시의 신체
- 2006.05.13. 4회 : Toekomst a venir :다가오는 미래
- 2008.05.31. 5회 : Eau 물
- 2010.05.22. 6회 : A Table 모임
- 2012.05.19. 7회 : Desordre 무질서
- 2014.05.10. 8회 : Tentation 유혹
- 2016.05.21. 9회 : Fragile 연약함
- 2018.05.12. 10회 : Illegal 불법의

기관 단위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2016년에는 포레스트예술학교, 에터백문화센터 등 학교와 지역기관이 참여한 바 있다. 여러 지역의 주민, 아티스트, 기관/단체를 모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사의 취지로 벨기에 및 브뤼셀이라는 도시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는 축제이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Pays de Danses / 페이드당스		
유형	축제/행사	장르	무용/공연예술
운영주체	Theatre de Liege (리에주 극장)		
개최시기	매 짝수년 2~3월	시작년도	2006년
개최도시	리에주, 벨기에		
참가규모	매년 약 7천명 이상이 20개 내외 공연을 관람		
홈페이지	<a href="http://theatredeliege.be/evenement/festival-pays-de-danses/">http://theatredeliege.be/evenement/festival-pays-de-danses/</a>		

‘페이드당스’는 벨기에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무용축제 중 하나로, 리에주 극장(Theatre de Liege)이 2006년부터 매 짝수 해마다 개최 중인 비엔날레이다. 매년 약 7천 명 이상의 관객들이 축제 기간 동안 공연을 관람하며,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된다. 주최기관인 리에주 극장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예술기관들 협업해 축제를 개최한다.

약 한 달에 걸친 축제기간 동안 왈로니-브뤼셀 연합 지역에서 제작된 현대무용작품 십 수개에 더하여 해외 작품을 다수 초청한다. 해외 아티스트의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 매 행사마다 특정 국가/지역에 중심을 두며, 2014년에는 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임지애, 안은미 안무가의 작품 등을 상연한 바 있다.

“모든 형태의 현대무용(Danse contemporaine sous toutes ses formes)”을 관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규모와 형태의 작품을 선정하는데, 2016년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르헨티나의 솔로, 혼성 탱고 및 음악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제7회 축제는 넬슨 만델라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부로, 남아프리카 현대무용의 일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 4개를 제시하며 축제 최초로 힙합 공연도 진행한다. 벨기에 로컬 안무가로는 안네 테레사 드 키에르스마커와 빔 반데키부스가 참여한다. 즉 페이드당스 축제

는 “혼종(Metissage)”을 지향하는 현대무용축제로, 여러 형태 및 국적의 예술이 현대무용과 교배한 결과물을 관객에게 제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사진 : 리에주극장\_페이드당스)

[TIP]

인구 약 20만명의 도시 리에주는 브뤼셀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벨기에 남부 지역을 일컫는 왈로니(왈롱(Wallonie), 발로니엔 또는 발로니에) 지역의 중심지이며, 리에주 극장은 왈로니의 가장 중요한 극장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국립현대무용단과 협업하여 안무가 아예린 파롤린과 함께 <나티보스>를 제작, 상연하기도 했다.

리에주 극장은 과거 주한벨기에대사 피에르 클레망 뒤비송(Pierre Clement Dubuisson)의 주관으로 <병사 이야기>의 제작을 한국 최수양 작가 등과 함께 진행하고 부산국제연극제에서 이 작품을 초연한 바 있으며, 2014년의 <페이 드 당스>에서는 임지애, 안은미, 고블린파티, 김지옥 등을 초청하며 한국 예술계와 지속적으로 교류 중인 기관이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b>Brussels Dance! / 브뤼셀 댄스!</b>		
유형	축제/행사	장르	복합/공연예술
운영주체	브뤼셀 시 (홍보, 언론 담당) 및 브뤼셀 소재 십수개 예술기관 협력 주최		
개최시기	매년 2~3월	시작년도	2000년
개최도시	벨기에, 브뤼셀		
참가규모	십수개 예술기관 협력, 150개 이상 예술단체/아티스트 참여		
홈페이지	<a href="http://www.brusselsdance.eu/">http://www.brusselsdance.eu/</a>		

브뤼셀 시와 왈로니브뤼셀연합이 지원하는 현대무용축제 <Brussels Dance!>는 브뤼셀의 다양한 극장과 무용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행사로, 브뤼셀 관객들에게 현대무용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보다 다양한 현대무용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매년 2월부터 3월까지 두달에 걸쳐 진행되며, 주로 프랑스어권 로컬 아티스트의 작품이 여러 장소에서 상연된다.

브뤼셀 시는 홍보와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뿐 프로그래밍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매년 축제에 참여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이 총괄 운영을 맡아 전체 컨셉만 설정할 뿐, 각각 기관이 상연할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2018년 축제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 간 진행되며, 총괄은 브뤼셀의 현대무용기관 ‘브리지팅스’가 맡았다. 샤를루아당스, 카이씨어터, Le 140, KVS, 스텐베르그 홀 등 평소에도 상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외에도 L’L, 개러지29와 같은 연구기관들도 함께 참여해 레지던시 아티스트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를 가진다.

[TIP]

2018년 행사에는 카이씨어터, 샤를루아당스, KVS, 국립극장(Theatre National) 등 대형 기관 외에도 발사민, 자크프랑크문화센터, L’L, 개러지29 등이 참여하여 총 13개 공간에서 총 50개의 공연과 워크숍, 강연 등이 100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랑스 안무가 크리스티앙 리조, 벨기에 무용단 담드픽, 일본 안무가 테시가와라 사부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Festival XS (Festival Extra Small)		
	유형	축제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Theatre National		
	개최시기	3월 중	시작년도	2011년
	개최도시	브뤼셀, 벨기에		
	참가규모	사흘간 약 20개 작품 상연 ; 14,000명 내외 관객 관람		
	홈페이지	<a href="https://www.theatrenational.be/fr/group/361-festival-xs-2018">https://www.theatrenational.be/fr/group/361-festival-xs-2018</a>		
		<p>&lt;Festival XS&gt;는 단어 그대로 “엄청나게 짧은(Extra short)” 공연예술작품을 위한 축제이다. 연극, 무용, 서커스, 인형극과 기타 퍼포먼스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으며, 단지 5~25분 정도의 상연 시간을 기준으로 컨템포러리 성향이 강한 작품을 선정해 상연한다. 2011년부터 벨기에 국립극장(Theatre National ; 왈로니권 국립극장 Theatre National de la Communaute francaise de Belgique)이 진행해 온 축제로, 매년 3월 사흘 동안 약 20개 정도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p> <p>대부분 국립극장이 직·간접적으로 제작에 참여한 작품이며, 벨기에 로컬 또는 해외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한 결과물을 내놓는다. 하룻밤에 약 9개까지 공연이 진행되며, 평시에 대중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리허설용 스튜디오나 창고, 직원용 카페테리아, 연습실 등을 개방해 상연장소로 사용한다.</p> <p>현대공연예술의 실험성을 장려하기 위한 축제로, 그 형태를 막론하고 짧은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공연 언어”를 제시하는 작품을 관객에게 소개하는 것을 축제의 목표로 삼고 있다. 프랑스 아비뇽 축제, 헝가리 트라포(Trafo) 축제 등과 파트너 관계로, 벨기에 국내외의 아티스트들과 프로그래머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p> <p>[TIP]</p> <p>2018년 &lt;Festival XS&gt;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상연작 중 서커스나 무용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22개 중 7개), 설치미술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작품도 있다. 특히 서커스 비엔날레 &lt;Festival UP!&gt;과 협력하여 상연하는 벨기에-프랑스 협업작품 &lt;오 렛 미(O let me)&gt;,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밀라노 출신의 예술가 클라우디오 스텔라토와 국립극장이 함께 제작한 &lt;2&gt; 등이 복합장르 서커스 작품으로 눈길을 끈다.</p>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Courtisane Festival / 코티잔 페스티벌		
	유형	축제	장르	영화/시각예술
	운영주체	겐트 왕립미술원 (KASK)		
	개최시기	3월중	시작년도	2002년
	개최도시	겐트, 벨기에		
	참가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5일에 걸쳐 진행</li> <li>- ‘Artists in Focus’ 세션을 통해 2~3명 감독 집중 조망</li> <li>- ‘Selection’ 세션을 통해 신진·중견감독 약 20명 작품 소개</li> </ul>		
	홈페이지	<a href="http://courtisane.be">http://courtisane.be</a>		
		<p>코티잔 페스티벌(Courtisane Festival)은 3월~4월 중 벨기에 겐트 지역에서 개최되는 영화 축제로, 겐트왕립미술원(KASK)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코티잔(Courtisane)’이 주최하는 행사이다. 다양한 스타일과 매체, 언어를 활용한 영화가 관객에게 선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사의 주된 목표다. 상업영화를 배제하는 대신 전적으로 실험성과 비판성, 모험성이 강</p>		

한 독립영화를 선정한다. 즉 주최측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영화를 중심으로 큐레이션을 진행한다.

영화 제작자, 배급사, 축제 프로그래머나 큐레이터, 감독과 배우,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서, 독립영화를 위한 축제의 장이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왕립미술관(KASK)뿐만 아니라 스피нк스(Sphinx)와 미나드(Minard), STUK 등 겐트에 위치한 다수 예술 기관이 협력해 영화를 상연한다. 플랑드르연합과 겐트 정부, 괴테 인스티튜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작은 규모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상연에 더불어 마스터클래스, 포럼 및 콘서트 등을 함께 진행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래밍을 보여준다.

[TIP]

2018년 코티잔 페스티벌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2017년 피터 네슬레(독일)와 오가와 신스케(일본)를 집중 조망한 이후, 2018년 행사는 인도의 영화감독 마니 카울과 중국 영화감독 왕빙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외에도 뮤지션 'LSDXOXO'이 뮤지컬 공연을 진행한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b>Gentse Feesten (Ghent Festivities) / 겐트페스티벌</b>		
유형	축제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겐트 시 정부		
개최시기	매년 7월	시작년도	1843년
개최도시	벨기에 겐트		
참가규모	약 200만명 참관		
홈페이지	<a href="https://gentsefeesten.stad.gent/">https://gentsefeesten.stad.gent/</a>		

겐트 페스티벌(Gentse Feesten ; Ghent Festivities)은 브뤼셀 겐트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예술축제 중 하나로, 평소에도 관광 수요가 높은 겐트에 수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다. 1843년부터 시작된 축제로서 매년 7월 약 열흘간 진행된다. 매년 약 200만 명이 참관하는데, 시 규모로 진행되는 행사 중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겐트 페스티벌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1969년부터이다. 처음에는 겐트 출신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공연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지금과 같은 규모를 자랑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겐트 구시가지 전체에서 여러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음악과 연극 등 공연예술 위주의 축제로 연극, 무용, 서커스, 코미디, 퍼포먼스, 클래식과 컨템포러리 음악 콘서트,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장르와 형태의 작품을 포괄한다. 공연예술을 위한 워크샵이나 포럼, 토론과 라운드테이블도 다수 진행된다. 특히 “10 Days OFF”로 불리는 음악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바, 겐트의 복합예술기관 중 하나인 ‘브루이트(Vooruit)’가 음악축제를 주관한다. 이외에도 ‘트레펀트 페스티벌(Trefpunt Festival)’, ‘겐트 재즈 페스티벌’, ‘코미디 페스티벌’, ‘인터내셔널 인형극축제’ 등이 겐트 페스티벌의 일부로서 진행되며, 실 새 없는 불거리를 선사한다.

\* TIP : 보통 축제는 세 번째 주 금요일에 시작해 네 번째 주 일요일에 끝나며 , 대개 벨기에의 국경일인 7월 21일을 포함한다. 축제의 마지막 일요일은 “빈 지갑의 날(The day of the empty wallets)”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음을 농담처럼 보여주는 별칭이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축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와 함께 유럽 3대 축제로 꼽히기도 한다. 2018년 행사는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Tomorrow Land / 투머로우랜드		
	유형	축제	장르	음악/공연예술
	운영주체	ID&T		
	개최시기	매년 7월	시작년도	2005년
	개최도시	벨기에 붐(Boom)		
	참가규모	40만 명 이상 관람		
	홈페이지	https://www.tomorrowland.com		
	<p>투머로우랜드(Tomorrowland)는 2005년 시작된 음악축제로, 세계 최대의 음악축제이자 가장 유명한 음악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최정상급 아티스트부터 신인 DJ까지 참여하는 아티스트의 폭이 넓고, 비록 전자음악(EDM) 축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변주가 다양한 편이다. 이미 데이비드 기타, 프레드 베이커,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 등이 다녀갔으며 개최 4년만에 관람객 10만명을 돌파한 후 지금은 약 4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축제가 되었다.</p> <p>매년 축제마다 하나의 키워드를 테마로 잡아 “내일의 세상”과 같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즉 무대예술(Scenography)에 무척 공을 기울이는데, 15년에는 “선율의 비밀왕국”, 16년에는 “불로장생의 묘약”, 17년에는 “친구들의 스펙터클”이 주제였다. 2018년은 “바다달팽이의 이야기”가 주제다. 풍부한 라인업과 볼거리에 힘입어 인터내셔널 댄스뮤직 어워드의 축제 부문 대상을 5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앤트워프에서 열리는 스팅크스 음악축제와 함께 벨기에의 국제적 음악축제로 이름이 높다.</p> <p>* TIP : 투머로우랜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음악축제 중 하나로, 벨기에의 소도시 ‘붐’에 위치한 속소도 빈 곳을 찾기 힘들다. 대개 판매 개시 1시간 내에 티켓이 매진된다. 2018년 축제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일종의 스피노프 축제로 ‘투머로우월드(Tommorrow world)’ 축제가 미국 조지아에서, ‘투머로우랜드 브라질’이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진행되기도 했다.</p>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TAZ (Theatre Aan Zee)		
	유형	축제	장르	복합/시각, 공연예술
	운영주체	TarTar vzw (비영리단체)		
	개최시기	매년 7~8월	시작년도	1997년
	개최도시	벨기에 오스텐드		
	참가규모	N/A		
	홈페이지	www.theateraanzee.be		
	<p>매년 벨기에의 해변 도시 오스텐드에서 열리는 복합예술축제로, “TAZ”, 즉 “Theatre Aan Zee”는 네덜란드어로 “Theatre By the Sea”를 의미한다. 처음에는 오스텐드 시 정부 관광청이 주관하는 축제였고 2개의 극장이 참여했으나 점차 그 규모가 커지면서 별도의 비영리 조직 ‘TarTar’가 출범하게 되었다.</p> <p>“공연예술축제(Performance Arts Festival)”를 모태로 2005년부터 ‘TAZ ON’과 ‘TAZ OFF’</p>			

섹션을 구분하여 보다 많은 장르와 규모의 작품을 포괄하게 되면서 TAZ는 점차 지금과 같이 연극과 음악 및 기타 다양한 복합장르를 아우르는 예술축제로 자리 잡았다. TAZ는 여느 축제와 달리 “젊은 예술가를 인도 한다”는 것을 축제의 명확한 핵심으로 삼고 있다. 즉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다양한 관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신진 아티스트를 위한 무대를 다수 마련하고 아티스트 간의 네트워킹을 장려하여 결과적으로 아티스트의 성장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둔다. 다양성과 실험성, 장르 간 융합과 협업을 선호하는 축제로서 음악, 연극, 무용, 문학, 사진 및 기타 혁신적인 예술작품을 발굴해 관객에게 선보인다.



\* TIP : TAZ 축제는 2014년 플레미쉬 문화상 공연예술부문(Flemish awards for Performing arts)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8년 제22회 축제가 역시 7월말부터 열흘간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의 퍼포먼스 아티스트 구자하도 참여한다.

IV. 문화예술 디렉토리 <인물>				
인물	인물명	Minhee Bervoet / 민희 베르보츠	소속	HNDRD
	장르	현대무용/공연예술	연락처	<a href="https://www.hndrd100.be/">https://www.hndrd100.be/</a> cynthiaschenkels@gmail.com
	주요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겐트 왕립학교 및 안트워프 왕립음악원 졸업</li> <li>- 2009 KBC 신진안무가상 수상</li> <li>- 2014 Spitgart 댄스페스티벌 수상</li> <li>- 네덜란드 FONTYA 무용축제 댄서/안무가 참여,</li> <li>&lt;So you think you can dance &gt; 텔레비전프로그램 댄서/심사위원 참여 등</li> </ul>		





(사진1 : HNDRD 안무가 Minhee Bervoet)



(사진2 : HNDRD 작품 One limited space)

민희 베르보츠는 입양 한인 안무가로서, 2009년 KBC 주최 신진안무가상을 수상한 후 2012년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하여 일반 대중에게까지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2012년에는 VTM 방송사 주관 프로그램 <Ultimate Dance Battle> 준결승에 진출하였고, 이후 댄스 배틀 프로그램 <So you think you can dance>의 댄서 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주로 네덜란드와 겐트/앤트워프 등 플랑드르어권 벨기에를 중심으로 활동하나, 브뤼셀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한다. 특히 2017년에는 현대무용컴퍼니 'HNDRD'를 창단하고 작품 '하나의 제한된 공간(One limited place)'를 초연, 이후 2018년 네덜란드 최대의 무용축제인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Holland Dance Festival)'에서 작품을 성황리에 공연하였다. 과거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작품 상연 및 한국 아티스트와의 교류 희망을 보인 바 있기도 하다.

\* TIP : HNDRD 최초 제작작품인 '하나의 제한된 공간(One limited space)'은 각기 다른 배경의 남녀 무용수들이 신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서 관객에게 무용수의 배경이나 사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품이다. 2018년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에서 안은미 안무가의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와 함께 많은 각광을 받았다.

인물명	구자하	소속	Pianofabriek
장르	퍼포먼스 / 공연예술	연락처	gujaha.com
주요 이력	2017 3부작 - 2부 'Cuckoo' 발표 2015 3부작 - 1부 'Lolling and Rolling' 발표 2015 'Copper and Oyster' EP 출시 2014 3부작 'Harmatia Trilogy' 작업 시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SNDO MA, Das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BFA, Theatre Studies)		

인물



(사진1 : 구자하 Cuckoo)

구자하(Jaha Koo)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활동 중인 퍼포먼스 아티스트 겸 뮤지션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극학 학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SNDO에서 예술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활동을 시작했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주로 플랑드르어권의 예술기관과 활발하게 교류 및 활동 중이다. 음악과 연극, 비주얼아트 등 여러 장르를 결합한 “다원예술 (Multi-disciplinary)” 공연을 선보인다. 2017년에는 네덜란드 YAA (Young Artfund Amsterdam) 재단 연극 및 음악부문 예술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2014년 시작한 ‘Harmatia’ 3부작 중 제2부 ‘Cuckoo’를 2017년 공개했으며, 이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공연하였다. 제1부 ‘Lolling and Rolling’과 제2부 ‘Cuckoo’는 유럽 각국에 초청되어 한국의 근현대사와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경험을 잘 버무려 녹여낸 작품으로서 호평을 받았다. 2018년 3부작의 마지막 작업에 착수한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피아노파브릭(Pianofabriek), 캠포(CAMPO), 베어스카우벨그(Beursschouwburg) 등 다양한 플랑드르 예술기관이 제작 또는 공동제작에 참여할 예정이다.

\* TIP : 다원예술을 지향하는 구자하 아티스트는 뮤지션으로서 활동할 때에는 ‘Gujaha’라는 일종의 별칭을 사용한다. 2015년 첫 EP를 출시했으며, 퍼포먼스에 사용되는 음악도 직접 만든다. 그 외 드라마 투르기, 시노그래피, 미디어아트 등 다방면의 예술을 융합하기 위해 여러 예술기관 또는 아티스트들과 협업한다. 특히 구자하와 마찬가지로 벨기에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가 정은경(Chung Eunkyung)과 함께 영상 작업을 진행하며 한층 더 다채로운 무대를 보여주고 있다.

인물명	허성임	소속	-
장르	현대무용 / 공연예술	연락처	sungimher.com
주요 이력			

**인물**



(사진1 : 허성임)

허성임 안무가는 현재 벨기에와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안무가로, 브뤼셀에 위치한 현대무용학교 P.A.R.T.S. 과정을 수료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안 파브르, 윌리엄 포사이드, 세드라베 컴퍼니, 니드컴퍼니 등 유수의 안무가 및 무용단과 함께 작업을 해 왔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니드컴퍼니와 함께 내한하기도 했고, 벨기에의 안무가 겸 연출가 스테프 레누어스와 함께 공동제작한 ‘넴프’를 문래예술공장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지금은 배우이자 안무가로 다양한 개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독일, 벨기에 3개국 기관이 공동작업한 작품 <You are okay>는 파독 광부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감정을 드러낸 작품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이외한국의 LIG 아트센터 등과도 작업한 바 있으며 브뤼셀 및 벨기에에서는 다수의 플랑드르 기관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 TIP : 허성임 안무가의 <You are Okay>는 약 40분 정도의 솔로 작품으로,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도 공연을 마쳤다. 시각예술적 면모가 강한 작품으로서 오스텐드, 메켈렌 등 벨기에의 여러 플랑드르권 지역에서 상연될 예정이다.

□ 기사 아이템 제안

I. 기사 아이템 제안			
제안아이템	벨기에 리에주 무용축제 <페이 드 당스 Pays de Danses>	게재 희망일	2018.03월 중
기획의도	벨기에 리에주(Liege) 지역의 대표적인 극장 겸 예술기관 '리에주 극장(Theatre de Liege)' 이 매 짝수년 개최하는 현대무용 비엔날레 <페이 드 당스>의 특징과 2018년 동향 및 그 의의를 전달		
아이템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에주 극장 주최 현대무용 비엔날레 &lt;페이 드 당스 Pays de Danses&gt; 개요 : 2006년 시작된 비엔날레로 리에주 극장 중심으로 다수 예술기관 협업 개최</li> <li>&lt;페이 드 당스&gt; 개최 목적과 축제의 특징 : "모든 형태의 현대무용" 제공 : 매 행사마다 특정 지역에 초점 - 한국,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 2018년 남아프리카 지역 무용 및 힙합 제공 예정</li> <li>&lt;페이 드 당스&gt; 참여 대표 아티스트 : 벨기에 로컬 아티스트 (안네 테레사 드 케에르스마커) : 남아프리카 아티스트 (넬슨 만델라 100주년 기념 행사) 4개 작품</li> <li>&lt;페이 드 당스&gt;에서 볼 수 있는 벨기에 현대무용계의 동향 및 의미 : 다양한 형태의 공연예술이 "교배", 탈장르적인 특징을 보여줌 : 벨기에 대표 현대무용 아티스트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징(탈국적, 탈장르)이 드러나는 축제 (얀 파브르, 안네 테레사 드 케에르스마커, 빔 반데키부스, 시나 체르카워 등)</li> </ol>		
제안아이템	벨기에 2~3월 무용축제 : 페이드당스/브뤼셀!댄스 축제 취재	게재 희망일	2018.3-4월 중
기획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겨울 기간 동안 벨기에 다수 기관이 협력해 진행하는 무용 축제를 소개</li> <li>- 전 연령층에 걸쳐 현대무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지 동향과, 여러 무용축제의 공통점(융합 장르성과 실험성, 포용성, "협력"을 통한 다양성의 제고)을 전달</li> </ul>		
아이템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벨기에의 현대무용축제 '페이드당스'와 '브뤼셀!댄스' 개요 - 12월 브뤼헤 지역의 디셈버댄스 축제를 이어 2개 축제 연속적으로 개최 : 리에주 '페이드당스', 브뤼셀 '브뤼셀!댄스' - 각기 벨기에의 플랑드르어권, 왈로니권 및 브뤼셀 수도권 무용 행사의 중추 담당</li> <li>리에주극장 &lt;페이드당스&gt; : 리에주 지역 근처 다수 예술기관 협력 비엔날레 - 벨기에 로컬 아티스트와 해외 중점지역 아티스트의 작품을 고루 소개 - 2014년에는 한국에 중점을 맞춘 바 있으며, 2018년 행사는 남아프리카 소개 - 어린 관객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다수 관객층 포괄 ; 높은 유료 객석 점유율 기록</li> <li>&lt;브뤼셀!댄스&gt; : 브뤼셀 소재 예술기관 협력 현대무용축제 - 각기 예술기관의 프로그래밍 특색을 살린 작품/아티스트 선정 - 현대무용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다양한 작품 초연으로 신진 아티스트 지원 - 현대무용에 대한 기관 및 일반관객층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li> </ol>		

	4. 벨기에 현대무용축제에서 볼 수 있는 현지 현대무용계의 일면 -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이 모두 관람 가능한 공연을 지향 - 개방성과 다양성, 포용성을 중시하며 현대무용의 동력을 확보		
제안아이템	벨기에의 영화축제	계재 희망일	3월 / 연중
기획의도	3월 “아카데미 시즌”을 맞이하여, 벨기에 브뤼셀의 다양한 영화공간과 축제를 소개함 : 여러 예술기관이 각종 프로젝트 및 축제를 진행하여, 실험성과 다양성을 제고함 : 판타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소수”장르에 대한 관심이 높음 : BIFFF, ANIMA 등 다양한 국제영화제 진행, 시각예술로서의 영화 장르		
아이템 개요	1. 브뤼셀의 여러 예술기관과 시각예술 “영화” : 보자르(시네마테크), 아르고스, 시네마노바, 시네마갤러리, 시네마어드벤처, 플라지 등  2. 예술기관의 특징 1) 보자르 2) 아르고스(Argos) 3) 시네마갤러리/시네마노바  3. 브뤼셀의 국제적 영화축제 : BIFFF(판타스틱영화제) 밀레니엄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아나마 국제영화제 등		
제안아이템	브뤼셀의 대표적 아트페어	계재 희망일	2018.05 중
기획의도	- “미술”을 일상적으로 관람하고 소비하는 브뤼셀의 동향 - 대표적 아트페어(Art Fair) 소개		
아이템 개요	1. 벨기에의 미술 관람객들 : “미술”을 가까이에서 - 아동 동반 가족 관람객들을 환영하는 미술관 - 전시·수용 장르의 다양함 ; ‘사진’ 전문 미술관, 왕립‘패션’미술관, 건축전시, 공예, 복합 전시..  2. 미술 관람객들의 터치포인트 : 아트페어, “Affordable Arts” - 미술작품을 더 가까이에서 소비할 수 있게 돕는 아트페어 - 브뤼셀의 여러 아트페어 : BRAFA (세계 최고最古의 아트페어), Brussels Affordable Art Fair, ArtBrussels, OFF Course art fair 등  3. 미술관과 아트페어가 반영하는 브뤼셀의 “미술”, “작품” 동향 - 일상적인 활동이자 생활품으로서의 예술 - 미술관의 프로모션, 아트페어의 기치 등에서 “일상성”이 드러남		